

박사학위논문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와의 영향관계 연구

-전남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은 정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유연우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와의 영향관계 연구

-전남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business performance in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s

-Focusing o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Jeonnam-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은 정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유연우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와의 영향관계 연구

-전남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business performance in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s

-Focusing o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Jeonnam-

위 논문을 컨설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은 정

김은정의 컨설팅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김 정 렬 (인)

심 사 위 원 김 상 봉 (인)

심 사 위 원 전 우 소 (인)

심 사 위 원 최 승 욱 (인)

심 사 위 원 유 연 우 (인)

국 문 초 록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와의 영향관계 연구
-전남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김 은 정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에 의한 상향식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특히 주민의 참여를 필수로 하는 사업이다. 상향식 사업에서는 주민에 의한 사업 계획수립과 역량강화 분야가 중시되고 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에서 주민참여는 형식적이고, 비자발적이며, 수동적이어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시설의 방치 또는 운영 부진, 프로그램 미흡, 운영인력 부재 등 다양한 문제와 함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키워 지원사업 이후 주민들이 자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의 참여 의도와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에 대한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주민참여의도를 자발적 참여의도, 비자발적 참여의도로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사업성과는 주민 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로 구분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도’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에 대한 주민의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각각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주민참여 행동, 공동체활성화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신뢰, 규범의 경우 주민참여 행동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네트워크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공동체활성화와의 영향관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이 기각되었다. 반면 자발적 참여 의도와 공동체활성화 사이에는 정(+)의 영향이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다섯째,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공동체 활성화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참여의도와 사업성과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간에 신뢰, 규범은 직접효과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로써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네트워크에 대한 직·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채택되지 않았다.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간의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매개로 가설이 채택 되었다.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간에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간접효과에 대해서 신뢰, 규범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네트워크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간에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모두 정(+)의 영향이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로써 가설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대상지 규모, 사업추진 현황, 성별,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도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사업성과인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발적 참여의도와 비자발적 참여의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주민참여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의 검증 결과 사업 대상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업성과 중 공동체활성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마을 단위 등 대상지 범위가 좁아질수록 주민들의 끈끈한 결속력이나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 추진지구보다 완료지구에서 주민참여 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완료지구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어촌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의도와 사업성과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역의 고학력이면서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단계적 시행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이 남성보다 자발적 참여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사업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추진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참여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론화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설정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등에 대한 사업의 정확한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 지역을 전남지역에 한정했으며, 지역별 사업 유형이 다르고 사업성과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간과하여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변수 설정에서 정성 평가만 적용하여 정량 평가의 추가 병행 여부가 미흡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별 사업을 구분하여 지역별 실증분석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과에 대해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가미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사업성과 변인인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시 컨설팅 기관의 역량 검증 방안, 사업성과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자발적 참여에 대한 차이검증이 나 세부 영향관계, 상향식과 하향식 개발방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의도,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4
1.3 연구 방법 및 구성	5
II. 이론적 배경	6
2.1 농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6
2.1.1 농어촌개발사업의 특성	6
2.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특성 및 정책변화	8
2.1.3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이해	18
2.2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23
2.2.1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의도의 개념	23
2.2.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28
2.2.3 주민참여의 선행연구	31
2.3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35
2.3.1 사회적 자본의 개념	35
2.3.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37
2.3.3 사회적 자본의 선행연구	43
2.4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46
2.4.1 사업성과의 평가	46
2.4.2 사업성과의 선행연구	52
III.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	56

3.1 연구모형	56
3.2 연구가설	57
3.2.1 주민참여의도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57
3.2.2 사회적 자본과 사업성과와의 관계	59
3.2.3 주민참여의도와 사업성과와의 관계	60
3.2.4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61
3.3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64
3.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64
3.3.2 설문지 구성	69
3.3.3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72
3.3.4 분석 방법	73
IV. 실증 분석	75
4.1 표본의 특성	75
4.1.1 표본의 일반적 특성	75
4.1.2 기술적 통계 분석	78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80
4.2.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80
4.2.2 상관관계 분석	84
4.2.3 동일방법편의 검정	85
4.3 측정모델의 평가	87
4.3.1 적합도 검정	87
4.3.2 집중타당성 분석	91
4.3.3 판별타당성 분석	93
4.4 가설 검증	94
4.4.1 구조모델의 적합도 평가	94
4.4.2 연구가설 검정	96

4.4.3	간접효과 검증	102
4.4.4	다중집단분석	105
4.4.5	사례 분석	113
V.	결론	122
5.1	연구 결과 요약	122
5.2	연구의 시사점	127
5.2.1	학문적 시사점	127
5.2.2	정책적 시사점	128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33
	참고 문헌	135
	부록	151
	ABSTRACT	156

표 목 차

[표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8
[표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지원기준	10
[표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내용 및 예시	11
[표 2-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12
[표 2-5]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요	16
[표 2-6]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연도별 분류체계의 변화	20
[표 2-7] 주민참여의 개념	25
[표 2-8] 주민참여의도의 개념	27
[표 2-9]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31
[표 2-10]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34
[표 2-11] 사회적 자본의 정의	37
[표 2-1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42
[표 2-13] 사회적 자본의 농어촌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45
[표 2-14] 사업성과의 평가지표	48
[표 2-15] 사업성과의 농어촌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55
[표 3-1] 연구가설 요약	63
[표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68
[표 3-3] 설문지의 구성	69
[표 3-4]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내용	72
[표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76
[표 4-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78
[표 4-3]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82
[표 4-4]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83
[표 4-5] 상관관계분석	84
[표 4-6] 적합도 판단기준	89
[표 4-7] 측정모델 적합도 평가결과 비교	90
[표 4-8]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92
[표 4-9]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93

[표 4-10] 구조모형 적합도 평가결과 비교	95
[표 4-11] 가설 검정 결과	97
[표 4-12] 간접효과 가설검정 결과	104
[표 4-13] 사업대상지 규모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06
[표 4-14] 완료지구와 사업규모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07
[표 4-15] 소득수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07
[표 4-16] 사업완료지구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08
[표 4-17] 직업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09
[표 4-18] 학력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09
[표 4-19] 사업완료지구와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10
[표 4-20] 성별과 역할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11
[표 4-21] 직업과 사업역할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111
[표 4-22] 대전면 행복문화센터 동아리 운영 현황	115

그림 목 차

[그림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천사	17
[그림 3-1] 연구모형	57
[그림 4-1] 동일방법편의 검정	86
[그림 4-2] 측정모델 분석결과 비교	89
[그림 4-3] 구조방정모형 분석 결과	96
[그림 5-1] 연구 가설 결과 요약	126

I.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5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농어촌개발사업은 1960년대 시범농촌 건설사업, 1970년대 새마을운동, 1980~1990년대 정주생활권개발사업까지 농어촌의 낙후지역에 대한 하드웨어(H/W) 중심의 인프라 정비 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최영완, 2015; 김효성, 2020; 김은정, 2022). 이후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제의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가 강조되면서 정부의 농어촌개발사업 전략과 정책 목표도 변하게 되었다(김은정, 2022).

농어촌개발사업은 2000년 이전까지 하드웨어(H/W)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이었던, 2000년 이후부터는 사업에 있어서 주민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전환되었다(김은정, 2022). 아울러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김은정, 2022).

주민주도형 개발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김효성, 2020; 김은정, 2022). 즉 사업계획에서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상향식 사업에서 주민에 의한 사업 계획수립과 역량강화 분야가 중시되면서, 이들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개발 컨설팅이 활성화되었다(김정태, 2014; 김은정, 2022). 농어촌개발 컨설팅 분야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형태의 교육, 일반컨설팅, 마케팅 등을 수행하며 흔히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는 형태로 추진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분야는 주민참여가 필수라는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역량 강화사업 부문이 더욱 증대되고 사업분야도 보다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2013; 김도덕, 2016; 이현주, 서지은, 2021).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생겨나서 현재까지 농어촌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2013; 김도덕, 2016; 김은정, 2022). 따라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추진 주체나 사업수행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업성과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은정, 2022).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무관심,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지원으로 구축된 시설의 운영 부진, 운영인력 미흡, 프로그램 부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것은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키워 지원사업 이후 주민들의 자립 운영을 위한 사업의 지속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으며,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상향식 개발방식을 통해 사업대상 주민들이 사업완료 이후 자립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짐으로써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Bossert, 1990; Brinkerhoff & Goldsmith, 1992; Scoones, 2007; Riswan, 2022).

특히 사업완료 이후 사업대상지의 자립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사업에 참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주민과 공동체의 참여가 사업 성공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다(Leeuwis, 2000; Pimoljinda & Siriprasertchok, 201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농어촌개발사업 전반에서 주민참여, 주민만족도, 사업성과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영아, 2009; 고진숙,

서영수, 2016; 김기성, 정미경, 나권희, 2018; 김효성, 2020; 신지웅, 2020; 김주현, 김한수, 2021). 반면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 선행연구는 사업 자체에 대한 세부적 특성사항-사업비 적정요율 산정,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전략적 특성, 항목별 중요도 등-과 같은 부분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다(최영완, 2015; 김기성, 정미경, 2020; 이현주, 서지은, 2021; 고성일, 임화순, 2021).

또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방법론에 대해서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론화되지 못하고 있다(김정태, 2014; 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2013; 최영완, 2015; 송미령 외, 2017; 이현주, 서지은, 2021; 고성일, 임화순, 2021).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는 지표로 인구증가율, 법인소득증가액, 역량강화교육 참여횟수, 방문객 증가수, 친환경 면적 증가율 등 물리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를 측정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설운영, 조직체계 구성여부 등의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송미령, 성주인, 2004; 채종훈, 2010; 송미령 외, 2017; 김기성, 정미경, 나권희, 2018).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참여를 필수로 하는 역량강화사업이므로(김은정, 2022), 사업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주관적인 성과평가 즉, 주민 만족도, 삶의 질 향상, 비경제적 효과(마을활력 증가, 경관의 아름다움, 보람증가, 갈등유발), 파급효과, 연계협력, 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성적 평가지표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여전히 사례 연구 및 질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며, 실증분석에 의한 연구는 미흡하다(박준규, 김민수, 김영하, 2017; 김재원, 2017; 허완, 2018; 김기성, 정미경, 2020; 김효성, 2020; 이현주, 서지은, 2021).

또한 최근 농어촌공동체의 가치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농어촌개발사업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로써,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주민참여의도와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간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기준을 주민역량강화의 관점에서 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른 실증분석을 추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참여 의도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주민역량강화 관점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계량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에 농촌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변인인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성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실제 행위인 ‘행동’으로 구분하고, 주민 참여의도는 ‘자발적 참여의도’와 ‘비자발적 참여의도’로 구분하며, 사업성과는 역량강화에 따른 마을구성원의 개인적 성과 측면인 ‘주민참여행동’과 전체적 성과 측면인 ‘공동체 활성화’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농어촌 개발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참여를 의도와 행동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간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를 높이는 필수 요소가 되는지, 그것이 사업성과를 유도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에 관한 다각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그동안 농어촌개발 선행연구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시도된 적이 없는 주민참여를 ‘의도’와 ‘행동’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인과 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둘째 사업성과의 변인으로 설정한 주민참여 행동과 공동체활성화에 관한 평가지표를 주민역량강화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 점이다.

1.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주민참여의도,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에 대한 개념과 관계 정립에 대해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료는 현장방문에 의한 설문 조사로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전남 지역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한 사업 대상지 중 적어도 1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2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약 10주간 진행하였으며, 총 238부를 유효표본으로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SPSS 22.0을 활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확인하였다. AMOS 22.0으로 동일방법편의 검증,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평가, 가설 검증을 하였으며, PROCESS macro 3.5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가설검증의 논리적 확인을 위한 다중집단분석은 SmartPLS 3.3.7을 활용하였으며,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내용은 모두 5장이며,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설계 및 조사방법, IV. 실증분석, V.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I.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기술하였고, II. 이론적 배경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참여,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III.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 등을 통해 확인한 각 연구변수의 관계에 대해 연구모형으로 제시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IV. 실증분석에서는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고, 측정모델 및 구조모델 평가를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가설을 검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였으며, 추가연구로서 다중집단 분석과 사례분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V.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기술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농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2.1.1 농어촌개발사업의 특성

농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산업과 환경, 공동체 문제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가 포함되며, 농촌지역개발정책 연구포럼(2008)에서는 농촌지역개발의 개념에 대해 농어촌지역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경제적 번영, 사회적 통합, 환경적 가치 고양 등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로 정의하였다(최영완, 2015).

한국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은 1950년대 시작하여 7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쳐, 80~90년대 정주생활권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화하였고,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및 정비 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농어촌개발은 실질적인 농업소득의 증대와 농어촌의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의 하향식 사업추진은 농어촌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 다원화의 확산과 더불어 농어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제의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가 강조되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상향식 개발방식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송미령 외, 2017). 2000년 이전까지는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이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이 도입된 것이다(김은정, 2022).

2004년에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지역발전 관련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되었고¹⁾, MB정부에서 지역

1) 균형발전특별회계가 MB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0년부터 부처별 200여개 개발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폐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설계, 집행하게 되었다(최영완, 2015; 송미령 외, 2017).

이때부터 본격적인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많은 제도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사업이 변화 추진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하나로 읍면지역을 포함한 농촌 시군 중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송미령 외, 2017).

농어촌개발사업 중 균특회계를 통해 시행되는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23개 시군 대상, 농식품부 주관), 도시활력증진사업(143개 시군, 국토부), 특수상황지역(15개 시군, 행안부), 성장촉진지역사업(70개 시군, 국토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시군, 농식품부)으로 그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어촌개발사업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송미령 외, 2017).

2004년부터 추진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상향식 개발방식의 기초를 다졌다면, 2010년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부터는 상향식 개발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상향식이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으로는 행정과 전문가들에 의한 하향식 개발방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향식 개발방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Butzlaff는 민주주의 양면성에 대한 성격 분석에서 주민에 대한 권한 부여는 하향식으로 결정되고, 참여 의제를 형성하는 것은 여전히 전문가 주도의 조정에 달려 있으며, 주민들은 상향식 참여를 통한 민주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 많은 주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이 전달하고 일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하향식 계획이 종종 주민들의 요구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분석하였다(Butzlaff, 2022).

명칭이 변경되었다(송미령 외, 2017).

2.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특성 및 정책변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현재 전국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113개 시군 1,154개 읍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31개 시군 124개 읍면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과 산촌, 해양수산부는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대상 지역 현황은 [표2-1]로 정리하였다.

[표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군	해양수산부 소관 시·군 읍·면
합계	113개 시·군 1,154개 읍·면	31개 시·군 124개 읍·면
소계	92개 시·군 963개 읍·면	10개 시·군 93개 읍·면
전담 시·군	성주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공주시,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서산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익산시,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순천시,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고령군, 경산시,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청도군, 고성군, 거창군, 김해시, 밀양시, 봉화군, 양산시, 의령군, 산청군, 예천군, 진주시, 창녕군, 칠곡군, 함안군, 함양군,	고흥군, 신안군,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울릉군, 거제시, 남해군, 통영시, 태안군

	합천군, 세종시	
소계	소계 21개 시·군 191개 읍·면	21개 시·군 31개 읍·면
중복	강릉시, 삼척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고창군, 부안군, 강진군, 보성군, 영광군, 장흥군, 해남군, 포항시, 경주시, 사천시, 울진군, 영덕군, 창원시, 하동군, 제주시, 서귀포시	
	*중복 시·군은 해양수산부 소관 읍·면을 제외한 전체 읍·면	강릉시 주문진읍, 삼척시 원덕읍,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보령시 오천면·주교면, 부안군 변산면·위도면·진서면, 고창군 심원면, 강진군 마량면·신전면, 보성군 회천면, 영광군 낙월면, 장흥군 안양면·회진면, 해남군 송지면, 경주시 감포읍, 사천시 서포면, 울진군 죽변면·후포면, 영덕군 강구면·축산면, 창원시 구산면·진동면, 포항시 구룡포읍·호미곶면, 하동군 금성면,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시 구좌읍·한림읍,

출처: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설명회 자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크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군역량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 중단으로 막을 내렸고, 마을만들기사업 등도 2020년 정책변화에 따라 지자체 자율시행사업으로 변화되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유형은 중앙부처 관할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있으며, 지자체 이양 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농촌형공공임대주택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등이 있다. 2022년 현재는 중앙부처 관할사업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며,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은 지자체의 자율시행에 따라 사업 유형에서 제외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사업유형별 지구당 최대 150억원+ α (국비70%, 지방비30%), 5년이내 사업기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표2-2]와 같다.

[표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지원기준

사업유형		지원조건	목적	지원 한도(억원)	사업 기간(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형	일반농산어촌 지역 1·2계층 읍면	농촌중심지 잠재력, 고유테마 살려 특성과 경쟁력 갖춘 농촌발전거점 육성. 배후마을과 도시연결 거점, 지역생활권 구현 중심역할	150억+ α 이하	5년 이내
	테마형	일반농산어촌 지역 전체 읍면 지역	농촌중심지 잠재력, 고유테마 살려 특성과 경쟁력 갖춘 농촌발전거점 육성. 배후마을과 도시연결 거점, 지역생활권 구현 중심역할	5억원 이하	2년 이내
기초생활 거점	일반농산어촌 지역 1·2계층 이외 읍면	농촌중심지 기능 보완, 배후마을 주민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40억+ α 이하	5년 이내	
시군역량	일반농산어촌 지역 전체 시군	지역주도 농촌지역개발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 위한 주민, 현장활동가 역량강화	3억+ α 이하	1년 이내	
농촌신활력 플러스	일반농산어촌 지역 전체 시군	농촌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구축된 자원 및 자생조직 활용 산업고도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자립지역 발전기반 구축 (2022년까지 100개소 신규선정 후 완료)	70억 이하	4년 이내	

<추가사업비(+ α) 지원분야>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인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시 10억원, 시군소재지 읍, 타중심지(읍·면)과 연계시 30억원, 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 포함시 50억원 추가지원
- 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1억원 추가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중 저자 정리

기능별 유형으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4가지로 분류되어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지 규모에 따른 유형으로는 읍면단위, 권역단위, 마을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 형태로는 하드웨어(H/W) 사업과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드웨어(H/W) 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에서 필요한 기반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소프트웨어(S/W) 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민 아이디어 발굴, 계획수립 및 실행방안 등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부터 농촌협약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비중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기능별 분류는 [표2-3]에서 보여주고 있다. 2020년까지는 기존 신규로 선정되어 시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아래 표처럼 총 4개(부대상항 제외)의 기능별 분류로 진행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2개 분야(부대상항 제외)로 사업이 분류돼 시행되고 있다.

[표2-3]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및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보육	아이돌봄센터, 공동육아센터·놀이방, 국공립어린이집 증축·리모델링
	교육	도서관, 노인교실, 방과후학습방, 다문화가족 공부방 등
	문화·체육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마당(예: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복합문화센터, 쉼터, 배후마을 연계 문화시설
	복지	다목적복지시설, 고령자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등), 서비스 전달시설 ¹⁾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작은 목욕탕 등
	보건·의료	다목적 의료·보건시설, 건강관리센터, 보건소·보건지소 증축·리모델링, 응급처치장비 등
	교통	버스 승강장, 공동주차장, 커뮤니티 버스, ICT 연계 교통시스템, 교통안전환경개선, 진입로 정비 등
	주택및거주환경개선	유희시설 활용 임대주택 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빈집 철거·정바개축, 혐오시설 철거,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공용주차장, 전통시장(5일장) 간판 정비·비가림시설 등
	재해안전	보안등, 재난대피안내시스템,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공동 방역시설·장비, 우수유출저감시설(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지능형 영상보안장비(CCTV)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로컬푸드 판매장·반가공시설, 특산물 소규모 집하·선별·가공·저장시설 등 공동 시설(ICT 융복합 시설 포함)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체험	지역자원·유휴시설을 활용한 체험시설(예: 폐교 활용 생태체험장·야영장 ²⁾ 등) 등(ICT 융복합 시설 포함)
지역경관 개선	경관·생태	생태 쉼터(둠벙 정비 ³⁾ 등), 경관 가꾸기(수목 식재 등), 향토·역사자원 정비,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등
지역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역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 구입
	지역 활성화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⁴⁾ , 지역 주민 화합마당,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부대사항	기획 설계·감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⁵⁾ , 건축기획·사전검토, 건축물 설계·감리,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조사(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사업지원	사무장·주민위원회 지원,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운영, 지역역량 강화 사전활동(교육·모임) 지원 등

- 1) 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2단계 사업 시)에 한해 가능, 타용도 전용 및 사유화 불가(시·군 소유, 운영비 제외)
- 2) 기반시설만 지원 가능(텐트, 오토캐러밴, 글램핑시설 등 사유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비는 지원 불가)
- 3)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 4) 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2단계 사업 시)만 해당
- 5) 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별도 경관계획 수립비용 지원 불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조 4,208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 및 투입예정될 계획이다. 매년 평균 1조 1,862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표2-4]는 연도별 사업비 투자금액을 보여준다.

[표2-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0~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5,420,849	12,925,891	765,536	894,081	835,341
국 고	10,795,293	9,048,822	535,875	625,857	584,739
지방비	4,625,556	3,877,069	229,661	268,224	250,602

출처: 2010~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후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을 취하고 있다(전미리, 2019; 황영섭, 2021). 또한 사업비를 일괄보조하면서 주민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마을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처별 추진 사업의 중복성 문제,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주민 간 갈등 문제, 주민들의 사업이해 부족과 사전준비 미흡, 사후관리 미비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전미리, 2019; 황영섭, 2021).

이런 문제들은 불확실성 시대에 급변하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중앙부처나 다른 지역에서 예산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시설물 조성 등 하드웨어사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지역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내부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촌개발 사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지역 사례도 종종 있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내부 역량을 높이고,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2015년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참여 및 활동 영역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때 도입된 제도가 마을 현장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농촌현장포럼 제도이며, 현재까지도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적용, 시행하고 있다.

권역²⁾ 단위로 시행하던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이 중단되면서 읍면 중심 또는 마을 중심으로 사업이 바뀌었다. 사실 권역 단위 사업이야말로 2000년대 초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농어촌개발사업의 가장 보편화된 상향식 추진방식이자 사업예산도 가장 많았지만 사업이 종료된 현재, 사업의 지속화와 사후관리가 가장 안되고 있는 골치덩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2) 권역은 2개 마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4개 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4~2010)이 시행되었던 시기에는 7~12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말았다. 현재에도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유지 및 활성화 목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농어촌개발사업은 총 3번에 걸쳐 대대적인 정책변화를 겪었다. 첫번째가 2010년 시행된 포괄보조금 제도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도입이다. 2004년 당시 4~12개까지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행하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도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2010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명맥을 유지하다가 2019년 사업종료되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후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등의 사업으로 재편성되면서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두번째가 2015년 도입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방식 개편이다. 지자체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를 거쳐 사업이 시행되며, 각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사업에 대한 기회가 부여되며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보았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을 발전시켜나가는 구상이다. 예비단계에서 주민들이 마을의 10년 발전계획을 스스로 설계하기 위해 농촌현장포럼이 의무적으로 추진되었다.

세번째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농촌협약’ 제도의 도입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및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중앙의 정책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은 2017년 로드맵이 설계되고, 2018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6대 전략, 33개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재정분권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 재정분권의 추진 전략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의 하위실천과제를 내세웠고, 그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변화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그동안 농식품부 관할로 추진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되고, 농식품부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역량강화 4개 사업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은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다움복원, 농촌형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는 시행하는 대리자 역할이었다면, 이제 정부는 정책의 방향만 설정하고 지자체가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기획하며, 지역이 필요로 하고 정책적 시너지가 큰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성과 중심의 패키지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림축산식품부, 국토연구원, 20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패러다임전환을 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등의 농촌협약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다.

농촌협약이란 정부가 농촌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목적, 내용, 예산, 일정 포함)들로 구성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말하며, 프로젝트들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 농촌공간계획과 농발계획³⁾에 기반하여 발굴, 기획하고 정부는 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농촌정책의 목표와 정책 수단들을 제시하였다(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협약 주체는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의 시장, 군수이며, 기간은 4~5년으로 정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협약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에 따라 재원을 공동부담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게 된다(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림축산식품부, 국토연구원, 2020).

농촌협약이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 농촌정책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위한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농촌공간전략계획은 20년 단위로 시군 전체를 공간으로 세우는 시군 장기 발전계획이며,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5년 단위로 시군내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계획이다. [표2-5]는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의 개요이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축약어

[표2-5]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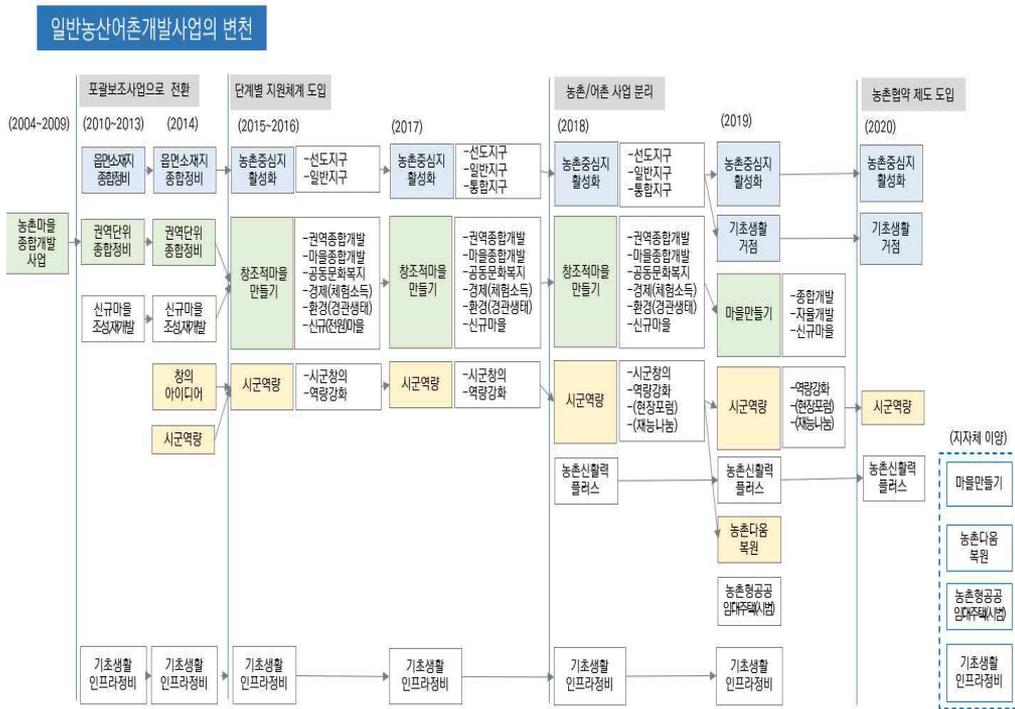
구분	농촌공간전략계획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시간적 범위	20년 단위	5년 단위
공간적 범위	시·군	시·군 내 생활권
기본 개념	시·군의 장기 발전계획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의 사업들의 통합계획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현황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 접근성 현황 - 시·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생활권의 개선, 활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협약 당사자 구성 및 추진체계 -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추진 예정 사업목록, 예산 및 재원, 일정 등) -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
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제시 - 별도의 사업은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마을만들기사업(이양사업) - 농촌형교통모델 -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출처: 농식품부, 국토연구원, 2020.

정책변화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발전 및 변화되어온 변천사에 대해서는 [그림2-1]로 정리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된지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농어촌개발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하였고, 다양한 시도속에서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참여주체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아직도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및 미참여, 시설물 조성 후 방치하거나 미활용 또는 목적 외 사용, 사업완료 후 추진위원회 해체, 프로그램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사업완료지구의 지속화에 달려있다.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사업 시행 전과 후,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완료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들의 사업참여와 사업 성과간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를 높이고, 사업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림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천사4)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분권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지만, 향후 출산율 저조에 따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4) 출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010~2022) 지침서 참조하여 저자 정리

마을 소멸의 우려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의 개발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되고 효율적이며 종합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체 복원이나 어메니티 증진, 상호간 신뢰,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1.3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이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역량강화 부문이 더욱 증대되고 사업 분야도 보다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2013). 농어촌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주체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지역주민의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효과를 추구하고자 하였다(이현주, 서지은, 2021; 김은정, 2022).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과 같은 실질적인 하드웨어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적자원인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마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립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소프트웨어 사업 즉 지역역량강화사업이 필수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현주, 서지은, 2021; 김은정, 2022).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형태로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김은정, 2022).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단순 사후 결과 확인이 아닌 프로젝트 기획, 실행, 모니터링, 사후 관리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최영완, 2015; 김은정, 2022).

농식품부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정의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소득향상,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일반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훈련은 주민 및 리더교육, 활성화프로그램, 전문가양성 위탁교육,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일반컨설팅은 마을활성화 계획수립, 사업모니터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현안문제 발굴 및 개선, 운영 전략 등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0~2022; 이현주, 서지은, 2021; 황영섭, 2021; 김은정, 2022).

마을경영지원은 PM단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사무장 지원 등이다(이현주, 서지은, 2021; 김은정, 2022). 이 중 교육과 일반컨설팅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갖는 대표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황영섭, 2021; 김은정, 2022). 지역역량강화사업 또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분류되고 있으며, [표2-6]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연도별 분류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0년 이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교육·훈련과 지역활성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량과 계획수립의 자율성을 감안할 때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통상적으로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일반컨설팅, 마을경영지원 등의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지침이 변화되었더라도 세부적인 사업 구성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최초의 지침서인 2010년도 매뉴얼과 사업구성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추가 제시된 2013년도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별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재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2-6]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연도별 분류체계의 변화

구분	사업구성	세부사항
농식품부 지킴 (2020)	교육·훈련	지역리더 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 구입 등
	지역 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지역주민 화합마당,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농식품부 지킴 (2019)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신문, 마을기록화, 정보화 교육 등)
	지역 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지원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수립,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감리비 등
농식품부 지킴 (2015)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사무장 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 및 마케팅, 마을브랜드 개발, 지역축제 활성화, 인구유치 프로그램, 귀농프로그램,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농어촌경관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세부설계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농식품부 지킴 (2010)	교육	리더교육(단계별 지도자교육, 경영자교육), 권역특성화교육(마을해설사양성, 지역특산음식개발, 농촌관광운영, 민박서비스, 경영인 양성, 유통관리, 농산물품질관리, 친환경농업관련 농산물가공이용·유통체계교육), 주민교육(인식변화, 동기화, 주민워크숍등), 국내외견학(국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컨 설 팅	사업운영진단(소득사업 경제성 분석, 권역개발 운영, 정보화 운영), 지역현안사항, 장단기발전방안, 권역맞춤형프로그램(지역특성화, 품질관리, 브랜드관리, 브랜드마케팅 등), 권역활성화계획(마케팅전략, 소득원개발, 유통체계개선, 기타 컨설팅) 등, 체험

		프로그램(자연, 농촌체험, 자원연계프로그램, 사회문화복지 프로그램(취미, 여가, 체육, 의료, 기타복지관련), 주민서비스 권역운영사업시행 프로그램 진행 등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사업 착수 후 시간경과에 따른 투자효율성 검토,
	홍보 마케팅	리플렛 제작 및 DM발송, 축제기획, 인쇄매체(팜플릿, 소식지 등)광고, 경비지원(기념품 제작), 교통광고, 인터넷광고, 이메일 광고, 웹진제작 및 발송, 쿠폰북 발행(민박, 펜션, 농산품 등), 이벤트 광고, 신문 광고, 방송사(공중파, 케이블) 광고, 전문잡지 광고, 안내판 광고, 판촉행사 광고, 스크린 광고, 권역상품개발, 브랜드플랫폼, 상표등록, 브랜드 관리 및 활용교육, 심볼&로고, 네이밍, 슬로건, 포장디자인 등
	정보화 구축	인터넷 홍보 및 운영에 따른 교육, 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구축, 홈페이지 운영비용(웹호스팅, 도메인: 영문/한글), 인터넷 사용료 지원, 권역 공동이용 정보화기기 및 전산용품 지원(PC,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 유지보수
	마을경영 지원	추진위원회, 사무장, 마을개발협의회, 마을운영지원 등

출처: 농식품부(2010~20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지침서 참고하여 저자 정리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추진주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위탁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수행자는 컨설팅업체 등이 담당하고 있다(김정태, 2013; 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2013). 개별 사업마다 사업의 참여주체(지자체, 농어촌공사, 컨설팅업체 등)의 역할과 역량에 차이가 있고 특히 컨설팅업체의 역량에 따라 각 마을, 권역마다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김정태, 2013; 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2013; 김정태, 2014).

사업추진 주체간에 명확한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업평가에 있어서도 사업관리의 주요 주체라 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2013). 그로 인해 사업관리주체 입장에서는 현재 불합리한 사업관리 대가기준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사업관리업무 재설계가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김정태, 2013; 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2013; 김정태, 2014; 최영완, 20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경관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시설과 함께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낙찰차액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투자하도록 지침상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설 기반 투자를 중시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기반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드웨어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전략 등의 실행계획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활성화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참여가 필수이므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실천 여부에 따라 향후 농어촌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2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2.2.1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의도의 개념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개념은 연구자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참여의 형태나 기능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 환경 및 경제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적 축적을 통해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에 대해 Verba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 공적 영역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해당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Verba, 1967). 이러한 정의는 비제도적 참여 등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를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병규, 권영주, 2015).

보다 넓은 의미의 주민참여를 규정한 연구를 살펴볼 때, Arnstein은 주민참여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일반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의 재분배 전략이라고 하였고(Arnstein, 1969), Huntington은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반 주민들의 의도된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Huntington, 1981).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참여는 주요 행위자를 일반 시민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의해 행정에 있어서 민주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하병규, 권영주, 2015).

Westergaard는 참여에 대해 제도와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집단적 활동이라고 하였고, Armitage는 사람들이 공통 관심사에 반응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견해를 수정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커뮤니티를 변경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Westergaard, 1986; Armitage, 1988; Riswan, 2022 인용).

Gamble & Weil은 사회사업실천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는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뿐 아니라 타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되기 위한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Gamble &

Weil, 1995). De Beer는 주민참여를 공동체 참여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필요를 이해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De Beer, 1998). Nabachi & Leighninger는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 수요, 이익, 관심이 정책 행위나 결정으로 통합되는 방식이라고 보았으며(Nabachi & Leighninger, 2015), Evans & Fernandez-Burgos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힘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변혁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달려있다고 보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Evans & Fernandez-Burgos, 2022).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하혜영 외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지역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을 주민참여라고 정의하였고(하혜영, 이재성, 2008), 하세헌 외는 주민참여를 자신의 거주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약자의 직접적, 자발적, 실질적 의사 반영이 참여의 핵심가치가 된다고 보았다(하세헌, 윤이화, 2012). 따라서 표면상 정부에 대한 참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요구를 참여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의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의 균형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하병규, 권영주, 2015).

임승빈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반주민들이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 과정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통제력을 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았다(임승빈, 2017). 전미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를 사업의 계획과정에서부터 시행과 운영, 관리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전미리, 2019), 김영옥 외는 주민참여를 참여 범주에 따라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김영옥, 주동범, 2022). 여기에서는 농어촌개발사업에서의 참여는 최협의 주민참여로 볼 수 있으므로, 최협의의 개념만을 인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를 ‘지역 주민들이 사회문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역개발의 계획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개념 정리는 [표2-7]에 나타냈다.

[표2-7] 주민참여의 개념

연구자	내용
Verba (1967)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해당 정책결정과정정에 참여하는 것
Arnstein (1969)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일반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권력의 재분배 전략
Huntington (1981)	주민참여에 대해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반 주민들의 의도된 행위
Westergaard (1986)	제도와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집단적 활동
Armitage (1988)	사람들이 공통 관심사에 반응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견해를 수정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커뮤니티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Gamble & Weil (1995)	사회사업실천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는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개념
De Beer (1998)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필요를 이해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접근 방식
하혜영, 이재성 (2008)	지역 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
하세현, 윤이화 (2012)	거주지역의 주민 구성원이 정책결정과정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정의하였고, 핵심가치는 약자의 직접적, 자발적, 실질적 의사가 반영되는 것
Nabachi & Leighninger (2015)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 수요, 이익, 관심이 정책행위나 결정으로 통합되는 방식
하병규, 권영주 (2015)	지역의 일반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지역의 현안문제부터 지자체의 정책결정까지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
임승빈 (2017)	종합적 관점에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모든 정책과정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며, 통제하기 위한 활동
전미리 (2019)	주민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계획과정부터 시행, 운영, 관리의 전 과정에 지역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
김영옥, 주동범 (2022)	정책결정자의 충원이나 정책결정에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주민의 활동, 정부에서의 영향력행사로 개념화

주민참여의 개념에는 참여의도와 참여행동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도와 참여행동을 구분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므로, 참여의도와 참여행동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참여의도의 개념에 대해 이길호는 선택에 대해서 최종 결심을 한 상태로써 실제로 참여 의향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고(이길호, 2014), 황동열 외는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나 개발프로그램의 과정에 참여할 의사 여부라고 하였다(황동열, 류희진, 2015). 고진숙 외는 주민 참여의도란 실제 참여보다 참여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고진숙, 서영수, 2016). 소비자 행동에서는 소비자의 태도가 의도한 바에 대해서 수행할 가능성은 적더라도 참여의향이 있을 때에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이길호, 2014).

Engel & Blackwell(1982)은 의사결정모형에서 행동의도가 소비자 또는 구매자의 예상되거나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며,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확률이 크다고 하였다(Cassill & Drake, 1987). Ajzen & Fishbein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돌아올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동의도라고 하였으며, 참여의도는 최종적으로 참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Ajzen & Fishbein, 1980).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대 등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의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된 변수들은 주민참여, 참여의도, 행동의도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송상섭, 한범수, 2010; 김미경, 2012).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단순히 정책 및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운영,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전미리, 2019).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의도는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참여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모형이론은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이란 개인적 요인인 행동적 태도와 사회적 요인인 주관적 규범이라는 두 가지 변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가지

변인이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여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관계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이론이다(Fishbein & Ajzen, 1975). 합리적 행위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방면에서 적용되며,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의 범위는 개인의 의지로 이뤄지는 행동에 국한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한계를 발전시킨 이론이 Ajzen의 계획된 행위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다. 행동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선행요인으로 하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행동으로 인해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보고, 그 가치는 본인의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도 그러한 행동이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가치이며, 동시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자원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봤다(Ajzen, 1991).

합리적 행위이론(TRA)과 이를 발전시킨 계획된 행위이론(TPB)의 관점을 농어촌개발사업에 적용해볼 때,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개인의 행위는 참여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주민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도에 대한 결과(성과)로써 주민참여행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행동과 관련해서는 사업성과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표2-8] 주민참여의도의 개념

연구자	내용
Ajzen & Fishbein (1980)	어떤 행동을 하기 전, 자신에게 긍정적 결과가 돌아올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것
Engel & Blackwell (1982)	의사결정모형에서 소비자나 구매자가 예상하거나 계획하는 미래 행동
이길호 (2014)	선택에 대해서 최종 결심을 한 상태로서 실제로 참여 의향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것
황동열 외 (2015)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나 개발프로그램의 과정에 참여할 의사여부
고진숙 외 (2016)	실제 참여보다 참여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마을 거주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의지

2.2.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민참여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측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Zimmerman은 참여민주주의, 포폴리즘의 재발견에서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능동적인 참여와 수동적인 참여로 주민참여를 유형화하였다(Zimmerman, 1986). Zimmerman에 따르면, 능동적인 참여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주민총회, 공청회, 주민발안, 주민투표, 자원봉사, 주민소환 등을 제시 가능하고, 수동적인 참여는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전해지는 정보를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여론조사, 정보공개, PR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Zimmerman, 1986; 하병규, 권영주, 2015; 김민지, 2019). Zimmerman의 참여유형 구분은 법적 근거 기준에 따라 비제도적 참여와 제도적 참여로 구분하기도 한다.

Arnstein은 주민참여 유형을 정책 결정의 참여 정도에 따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로 나누어 각각을 세분화하였고 주민참여를 8단계로 유형화하여 ‘참여의 사다리모형’을 만들었다(Arnstein, 1969). Arnstein은 비참여는 조작, 긴장완화 및 치유 등이 해당되고, 형식적 참여는 정보제공, 의견청취, 회유, 컨설팅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 참여는 파트너십, 위임된 파워, 시민에 의한 통제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다(Arnstein, 1969; 김환배, 2020).

이후 Wates는 Arnstein의 모형을 4단계로 축약 정리하였다. 정보제공단계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에게 통보하기만 하는 단계이고, 협의의 단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공받아 정부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 파트너십의 단계는 정부와 주민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단계, 위임자조단계는 지역사회 단독으로 사업을 기획·계획하고 실행하며 관리하는 단계로 정의하였다(Wates, 2000; 전미리, 2019).

Arnstein과 Wates의 주민참여단계는 정부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Arnstein, 1969; Wates, 2000; 전미리, 2019).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이 사업 전반에 관해 스스로 추진하는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OECD는 주민참여의 단계를 정보제공, 협의, 능동적 참여의 3단계로 구분하여 Arnstein과 Wates의 주민참여 단계를 재축약 정리하였다(OECD, 2001; 전미리, 2019; 황영섭, 2021).

주민참여를 2개 층위로 범주화한 유형으로는 전영평 외는 제도적 주민참여와 비제도적 주민참여로 주민참여의 차원을 분류하였고(전영평, 홍성만, 김선희, 2007; 하병규, 권영주, 2015). 송경재는 시민참여를 Ester & Vinken(2003)과 Norris(2002)의 시민참여 층위에 따른 구분법을 차용하여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로 구분하였다(송경재, 2013; 하병규, 권영주, 2015).

양덕순 외는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주민참여 의향, 주민참여 정도, 주민참여 관심도 등 3개의 하위지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양덕순, 강영순, 2008; 하병규, 권영주, 2015; Almond & Verba, 2015). 조용란은 사회적 자본이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주민참여의 측정을 축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참여도, 만족도의 3층위로 측정하였다(조용란, 2011; 하병규, 권영주, 2015).

그 밖에 주민참여에 대해 Milbrath은 무관심형, 관객형 활동, 과도형 활동, 투사형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Lyons & Lowery은 적극적 참여, 중도적 참여, 소극적 참여, 참여거부(무시)로, Creighton은 절차적 참여, 정보제공, 협의 및 집합적 문제해결, 합의 형성으로 분류하였다(Milbrath, 1965; Lyons & Lowery, 1986; Creighton, 2005). 그 외에도 다양하게 주민참여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가 많지만, 주민참여의 가장 큰 유형화 기준은 참여 주체의 자발성과 적극성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개발사업에 적합한 주민참여 요소를 수정보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Zimmerman이 제시한 능동적 참여는 비제도적 참여, 실질적 참여, 자발적 참여, 적극적 참여와 일맥상통하며, 수동적 참여는 제도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자발적 참여, 소극적 참여와 같은 의미로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측정요소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Zimmerman과 Lyons & Lowery, Arnstein, OECD의 구성요소를 농어촌개발 사업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Zimmerman, Lyons & Lowery의 능동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적극적 참여는 ‘자발적 참여’로 구분하고, 수동적 참여, 제도적 참여, 소극적 참여는 ‘비자발적 참여’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Arnstein의 실질적 참여는 능동적 참여, 형식적 참여는 비자발적 참여로 분류하였으며, OECD의 정보제공과 협의(일부)는 비자발적 참여, 협의(일부)와 능동적 참여는 자발적 참여로 측정요소들을 분류하여 적절히 문항을 배치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의 측정은 자발적 참여와 비자발적 참여로 2개 하위요소로 구성하였고, 주민참여에는 참여 주체의 ‘의도’가 중시되는 부분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 단계를 주민참여의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자발적’의 개념은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것으로,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능동적, 적극적, 진취적’ 개념과 유사하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반면 ‘비자발적’의 개념은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의 작용을 받아 움직인다는 ‘수동적’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따라서 비자발적 참여는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참여자의 자발성은 공동체적인 접근에서 사회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한다. 비자발적 참여는 관료제적 방식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서비스 대상자를 반영하는 절차를 두는데, 이러한 방식의 참여는 제도에 의해 요구되는 참여로 본다(김은정, 2015).

참여유형은 참여의 자발성 수준에 따라서 가장 명확히 구분될 수 있고, 참여의 의미와 가치는 사실상 참여자의 자발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은정, 2015).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더 나은 지식과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보았다(SRHR, 2021).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젊은 층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달리 말하면 기성 세대들이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참여의도를 ‘개인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비제도적, 실질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로 정의하며,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개인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제도적, 형식적, 수동적, 소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2-9]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Milbrath(1965)	무관심형, 관객형 활동, 과도형 활동, 투사형활동
Arnstein(1969)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
Zimmerman(1986)	능동적인 참여(비제도적 참여), 수동적인 참여(제도적 참여)
Lyons & Lowery(1986)	적극적 참여, 중도적 참여, 소극적 참여, 참여거부(무시)
Wates(2000)	정보제공단계, 협의의 단계, 파트너십 단계, 위임자조단계
Creighton(2005)	절차적 참여, 정보제공, 협의 및 집합적 문제해결, 합의형성
OECD(2001), 전미리(2019), 황영섭(2021)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
전영평 외(2007)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송경재(2003)	관습적 참여, 비관습적 참여
양덕순 외(2008)	주민참여 의향, 주민참여 정도, 주민참여 관심도
조용란(2011)	관심도, 참여도, 만족도

2.2.3 주민참여의 선행연구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는 필수 요소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주민참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해서도 안될 것이다.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단순히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시행과 운영,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참여가 농어촌개발사업에 대두된 원인은

정부 주도 사업이 농촌문제 해결에 한계점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전미리, 2019; 황영섭, 2021).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의 관계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 수준과 마을개발사업의 성과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성과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송미령, 성주인, 2005; 허완, 조현구, 2018).

2000년 이후 농어촌개발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변화되면서 하드웨어(H/W) 위주의 사업을 최소화하고 주민공동체 화합과 주민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늘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한계를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사업별로 형식적인 주민참여를 시도했다는 점(주민참여를 보장한 제도의 미비, 행정 편의적 주민참여 유도, 유사중복 사업 및 정책 난무, 정부 주도 농촌개발 방식 및 지원사업에 익숙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미흡) 둘째, 마을공동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마을공동체 특성상 주민간 상호의존성은 높지만 주민 각자 사업목표나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차, 갈등)을 들고 있다(전미리, 2019).

표면적 주민참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이끌지 못하고, 사업시설 유지와 관련해 마을간, 주민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고, 실질적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수진, 나주몽, 송인성, 2013; 전미리, 2019).

김승근은 주민참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적 역량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과정적 가치'를 주장하였고(김승근, 2009), 허주열 외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 내용을 실질적 주민참여와 추진단계별 주민참여로 구분하여 추진위원회 비해 일반주민의 참여도가 낮음을 밝히며 일반주민들의 단계별 참여유도방안을 제시하였다(허주열, 이성근, 2009; 허완, 2018).

박미애는 주민참여의 구성요소로 주민, 행위, 적극적 노력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참여의 주체로서 주민과 참여를 유인하고 수용하는 공식적인 기관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될 때에만 참여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박미애, 2008).

하병규 외는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수록 제도적, 비제도적 참여에 긍정적이며,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갖는 충족감, 연대감, 상호간의 영향에 대한 의식 등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주민참여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나 조급한 성과주의보다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주도와 관 후원의 형태로 운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하병규, 권영주, 2015).

고진숙 외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의도가 높으면 실제 주민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김재원은 주민참여를 위해 마을 운영위원은 경제적 보상, 일반주민은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고진숙, 서영수, 2017; 김재원, 2017).

황영섭은 지역역량강화사업 중 교육, 컨설팅이 사회적 자본 인식수준을 매개로 사업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순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시행만으로는 주민 의식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한계를 확인하였고, 이상재는 2015년부터 추진 중인 단계별 지원체계 중 예비단계에서 추진하는 농촌현장포럼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황영섭, 2021; 이상재, 2021).

농어촌지역개발과 주민참여에 관한 최근 국외 선행연구에서 Setokoe & Ramukumba는 공동체(주민) 참여는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자본과 직접 연결되어 구성원간의 유대, 관계, 상호작용, 신뢰 및 소유권 의식을 구축한다고 보았다(Setokoe & Ramukumba, 2020).

Riswan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얻기 위한 자산이자 유용한 모델임과 동시에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 만족스러운 수준과 참여로 공동체의 최대 이익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iswan, 2022).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2-9]에 정리하였다.

[표2-9]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송미령외 (2005)	주민참여 수준과 마을개발사업의 성과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박미애 (2008)	주민참여의 구성요소로 주민, 행위, 적극적 노력 3가지를 들고, 주민은 참여의 주체로서, 공적 기관은 주민참여를 유인하고 수용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될 때만 참여의 효과가 있음
허주열외 (2009)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추진단계별 주민참여와 실질적 주민참여로 구분하여 추진위원회 비해 일반주민의 참여도가 낮음을 밝히고 일반주민들의 단계별 참여 유도 방안을 제시하였음
김승근 (2009)	주민참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들간의 소통 통한 공동체적 역량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는 '과정적 가치'를 주장함
고진숙외 (2017)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의도가 높으면 실제 주민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함
김재원 (2017)	주민참여를 위해 마을 운영위원회는 '경제적 보상', 일반주민은 '교육과 선진견학'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등 인식 차이를 확인함
전미리 (2019)	주민참여의 한계를 2가지 측면에서 분석, 첫째는 사업별로 형식적인 주민참여를 시도했다는 점, 둘째는 마을공동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음
Setokoe & Ramukumba (2020)	공동체(주민) 참여는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자본과 직접 연결되어 구성원간의 유대, 관계, 상호작용, 신뢰 및 소유권 의식을 구축함
이상재 (2021)	농촌개발사업 참여주민의 역량수준과 사업만족도 연구에서 2015년부터 주민 주도 및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단계별 지원체계 중 예비 단계에서 추진되는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분석(주민참여도, 만족도)을 시행함
황영섭 (2021)	지역역량강화사업 중 교육, 컨설팅이 사회적 자본 인식수준을 매개로 사업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단순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시행만으로는 주민 의식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Riswan (2022)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얻기 위한 자산이자 유용한 모델임과 동시에 상향식 접근방식을 통해 만족스러운 수준과 참여로 공동체의 최대 이익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2.3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2.3.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적 행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 제도의 효과를 높여주며, 민주주의 작동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영수, 2022). 조직 수준에서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도 하고,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학업 성취, 건강, 사회 이동성, 직업 지위 등 다양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Putnam, 1993, 2000; Rothstein & Stolle, 2008; Albano & Barbera, 2010).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는 프랑스 정치학자 Tocqueville에 의해 처음 사용하였으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Bourdieu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용어로 사용되었고 Coleman, Putnam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끌어올려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Tocqueville, 1835; Bourdieu, 1986; Coleman, 1990; Putnam, 1993). Bourdieu는 단체 구성원 상호간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제도화된 관계를 인정하는 결과로 나타난 각 구성원들 간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Bourdieu, 1986, 2011).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은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구조내 개인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규범과 제재라고 정의하였다(Coleman, 1990). Putnam은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규범,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를 포함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이라고 정의하였다(Putnam, 1993, 1995). Coleman이 자본의 측면에서 도구적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Putnam은 공공의 덕목인 시민정신과 같은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Li, Scriven, & Garman, 2007; 이영수, 2022).

Woolcock은 상호이익을 위해 집합 행동을 촉진시키는 규범과 연결망이라고 정의하였다(Woolcock, 2000). OECD 또한 집단내, 집단간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가치, 이해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OECD, 2001).

국내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김상춘은 Bourdieu의 이론을 확장하여 사회적 자본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고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소속이 해당 당사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고 정의하였다(김상춘, 2004). 김태룡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적 환경 안에서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제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원동력으로 정의하였다(김태룡, 2006).

박용순은 사회적 자본이란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물적, 인적 자본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 형태의 총합이라고 설명하였다(박용순, 2009). 이수능은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에 형성된 관계망에 기초하여 형성된 신뢰, 규범, 호혜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지역사회 경제적, 비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이수능, 2016).

배광빈 외는 사람들간의 관계 구조에 행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조직내에서 함께 일하고 결속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배광빈, 류인권, 2020), 이지현은 사회적 자본이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지만 개인과 집단의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는 관계 구조로 네트워크, 상호호혜적 규범, 신뢰라고 하였다(이지현, 2022).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나 거기에서 표출되는 개념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구성요소들에 의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표2-11]로 설명할 수 있다.

[표2-11] 사회적 자본의 정의

연구자	사회적 자본 정의
Bourdieu (1986)	구성원 상호간에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와 제도화된 관계 인정의 결과로 나타난 각 구성원들간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Coleman (1988, 1990)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구조내 개인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사회구조의 측면
Putnam (1990)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사회조직의 한 형태로서 사회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
Woolcock (2000)	상호이익을 위해 집단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규범과 네트워크
김상춘 (2004)	사회관계 속에서 개개인이 갖는 연결망, 집단소속이 해당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
김태룡 (2006)	공동체적 환경안에서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도적 영향을 주고받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원동력
박용순 (2009)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 기존의 인적, 물적자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형태의 총합
이수 (2016)	사람들간 형성된 관계 연결망을 기초하여 형성되는 신뢰, 규범, 호혜 등 사회문화적 요소
배광빈 외 (2020)	사람들간의 관계 구조에 행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하고 결속하는 능력
이지현 (2022)	개인과 집단의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계 구조로써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를 의미

2.3.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정의 또한 연구자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농어촌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자본의 측정가능 요소와 관련한 농어촌개발사업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제시되는 보편적인 구성요소로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집약한다(최종렬, 2004; 전미리, 2019).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 규범, 신뢰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시민적 참여의 연결망, 즉 네트워크가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며, 구성원 간에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네트워크가 모든 의사소통과 신뢰성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라고 주장하였다(Putnam, 1993; 성기호, 2015; 이상범, 2018).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의무와 기대감, 신뢰, 규범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물질적인 자원의 양이나 질과는 별개로 높은 의무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시민은 실제 개인이 인식하는 자본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Coleman, 1990).

World Bank에서는 1993년부터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세계개발보고(2000, 2001)에서 개발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World Bank, 2001; 김선희, 2008). 특히 World Bank는 Grootaert가 개발한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SC-IQ: Social Capital Integrated Questionnaire)를 통해 6가지 차원 즉 네트워크, 신뢰, 집단행동,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결속, 권한 부여를 개발보고서에 채택하고 설문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자본 지표를 제시하였다(Grootaert, 2003; Grootaert, Narayan, Jones, & Woolcock, 2004).

Cook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지표는 양극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증적 유형화 결과, 개념 및 기능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의 하위 지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하위지표들의 수준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Cook, 2005; 이영수, 2022).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호혜성, 참여, 친밀, 공동체 의식, 결속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노정민, 2013; 노병찬, 주덕, 2016; 김수린, 주경희, 정순돌, 2018; 고진영, 2019; 황성호, 이희선, 2019; 배광빈, 류인권, 2020; 황영섭, 2021; 이영수, 2022). Coleman, Putnam, OECD, Woolcock 등이 핵심 지표로 제시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가지표를 더 넣거나 빼거나 하는 식이다. 이영수(2022)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3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신뢰에 대해서는

따로 제도적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공통적인 구성요소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이외에 참여, 제도, 호혜성, 결속, 커뮤니케이션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간에는 상호 강한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보편적 접근과 사회권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 간의 신뢰, 사회규범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Rothstein, 2001; Rothstein & Uslander, 2005; Ferragina, 2017).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를 매개하고 공동체 의식과 결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요소로 제시하고자 Coleman(1990), Putnam(1993, 1995), OECD(2001) 등이 연구한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3.2.1. 신뢰

Putnam은 신뢰를 본질적인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의 하나로 보았으며, 현대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시민에게 넓은 협조 행동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얇은 형태의 사회적 신뢰가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Putnam, 1993; 원동재, 2013). Coleman은 신뢰에 대해 배신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았다(Coleman, 1990; 황영섭, 2021). Helliwell과 Bjørnskov 또한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Helliwell, 2006; Bjørnskov, 2006).

박세경 외는 신뢰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기대인데 일반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신념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 신뢰로 인해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 감시, 통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세경, 김형용, 강혜규, 박소현, 2008; 이성조, 2013; 황영섭, 2021). 사회적 신뢰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공동체 교육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된다(서용선 외, 2016; 황영섭, 2021).

Putnam은 신뢰를 대상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관한 신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이해타산적 신뢰, 지식의 신뢰, 동일화의 신뢰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다(Putnam, 1993; 전미리, 2019; 황영섭, 2021).

특히 농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혈연·지연 관계의 소속감이 강한 집단으로 신뢰가 바탕인 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외부적인 요인인 농촌 개발사업을 통해 갈등이 지속된다면,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활성화의 저해와 기존의 전통적인 주민 간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이상범,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신뢰란 ‘사업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강한 소속감과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주관적 믿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농촌 지역에서 신뢰를 통한 공동체 회복과 사업에 대한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자본에서 신뢰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2.3.2.2. 규범

규범은 긴 시간에 걸쳐 사회에 수용된 행동규칙으로 무임승차와 같은 공공재 문제의 극복에 도움을 주며, 구성원은 규범에 따라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하기도 하고,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은 규제를 받으며, 규범은 교육을 포함하는 사회화, 상호작용의 모델, 그리고 처벌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된다(Coleman, 1988; 이성조, 2013).

Putnam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규범에 대해 현금이 물물교환보다 더 효율적인 것처럼 규범에 의존하는 사회는 불신의 사회보다 더 효율적이며, 규범은 네트워크의 기대를 통해 확고해진다고 하였다(Putnam, 1993).

규범이 효과적일 때 사회적 자본 역시 강력한 형태를 띠게 되며, 규범은 개인의 이기적인 사고를 제어하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며, 나아가 상호 지지와 보살핌, 헌신 등을 통해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든다.

농어촌개발사업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중 규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임승차를 줄이고,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에서 마을 내부의 규약 등과 같은 규범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3.2.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연계 형태를 의미하며, 집단 내 관계와 유대를 돈독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원동재, 2013). 사회적 자본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연계 형태를 띤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규범과 정보의 흐름도 네트워크로 인해 가능하게 되어 공동체의 유지와 사회구조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구혜정, 2005).

Coleman은 모든 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비공식이거나 공식조직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가지며,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과 상호 규범을 가지고 협력한다고 하였다(Coleman, 1988). Putnam은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고려하였으며, 네트워크의 존재로 인해 신뢰가 상호 이동 및 확산 될 수 있다고 보았다(Putnam, 1993). 나아가 네트워크를 속성에 따라 교량형 네트워크, 결속형 네트워크로 분류하고 집단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데 있어 강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utnam, 2000).

박희봉은 조직 내 네트워크의 형성은 조직구성원 간 정보와 지식의 전달과 공유, 의사소통의 원활화, 참여의 조장을 통해 조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박희봉, 2007). 농어촌개발사업의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모두 내부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집단 내 관계와 유대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이상범, 2018).

Coleman(1990)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한 것이나, Putnam(1993)이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주민들

간의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한 것과 동일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성기호, 2015). 네트워크는 신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는 형성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하듯이, 네트워크 형성은 신뢰를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네트워크 및 신뢰를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네트워크는 주민들간의 내부적 정보교류와 함께 행정기관, 외부전문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유도하는 매개체로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사는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표2-12]에 나타났다.

[표 2-1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Bourdieu(1986)	신뢰
Colman(1990), Putnam(1993)	신뢰, 네트워크, 규범
Fukuyama(2002)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Grootaert(2003)	사회집단과 네트워크, 신뢰와 연대, 집단행동과 협동, 정보와 대화, 사회적 응집력과 포용력, 임파워먼트와 정치적 행위
Grootaert et al(2004) World Bank(2004)	신뢰, 네트워크, 집단행동,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결속, 권한부여
노정민(2013)	신뢰도, 참여도, 친밀도, 공동체 의식
노병찬 외(2016), 고진영(2019)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
김수린 외(2018), 황성호 외(2019)	신뢰, 규범, 네트워크
배광빈 외(2020)	신뢰, 참여, 네트워크
황영섭(2021)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결속
이영수(2022)	신뢰(제도적 신뢰, 일반화된 신뢰), 네트워크, 규범

2.3.3 사회적 자본의 선행연구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사회적 자본인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서도 농어촌공동체와 주민참여와 관련한 연구들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을공동체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들에게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농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순기능이 될 수도 있으나 자칫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시 주민간의 갈등 관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귀농이나 귀촌인들에 대한 텃세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순기능으로는 농어촌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시키고 네트워크 형성과 신뢰 구축 등을 통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국가보다는 지역과 주민 역량을 살려 형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동체적 협력 문제를 극복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고, 농어촌지역 발전과는 연관성이 있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강대기, 2004; 전미리, 2019; 고진영, 2019).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농어촌개발사업 간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윤유식 외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효과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요소 조사에서 사회자본요인으로 협력, 네트워크, 신뢰성, 규범으로 선정하고, 결과적으로 농촌마을개발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은 유형에 상관 없이 사업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윤유식, 박덕병, 2008).

김정태는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중 리더십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치중되어 그 외 다른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이 갖는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주민이 현실을 자각하고 공유된 비전과 목표를 형성하는 등의 교육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정태, 2014).

박용순 외는 농촌은 관광객의 활동 공간이기 이전에 오랜 전통을 토대로 살아온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으로, 농촌관광개발로 지역사회에 분열이 생기거나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용순, 제상호, 2015).

박수진 외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로서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지를 검증하고, 주민참여 수준과 사업 및 삶의 만족도를 함께 제고해야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박수진, 나주몽, 2015).

노병찬 외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참여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에서 지역민의 네트워크, 규범 요인 강화를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이외에 다양한 자발적 공동체 활동의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노병찬, 주덕, 2016). 고진영은 농촌개발사업의 물리적 환경 조성 and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6개 마을에 대한 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한 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고진영, 2019).

전미리는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추진위원과 일반주민의 참여도가 다른 이유를 정보공유의 차이, 즉 사회적 자본의 차이라고 주장하였다(전미리, 2019).

황영섭은 사회적 자본이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는 토대로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등과의 결합을 통해 더 큰 생산성을 발휘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질적 성장을 전제하는 지역발전의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였다(황영섭, 2021). 최근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에서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활만족도 중 가족관계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김영옥, 주동범, 2022).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사업과 사회적 자본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어촌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화되기 위한 동력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는 [표2-13]에서 보여준다.

[표 2-13] 사회적 자본의 농어촌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윤유식의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은 유형과는 상관없이 사업의 사회문화, 경제, 환경 등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함
김정태 (2014)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촌사회에 내재된 사회자본의 사업추진과정 작용효과 분석에서 주민이 공유된 비전과 목표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이 개선되어야 함을 규명함
박용순외 (2015)	농촌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써 농촌관광개발때문에 지역사회에 분열이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커뮤니티 사회적 자본형성이 중요하다고 봄
박수진외 (2015)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로서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지를 검증하고, 주민참여수준과 사업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함
노병찬외 (2016)	주민참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민의 네트워크, 규범 요인 강화를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자발적 공동체 활동의 참여기회 마련,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고진영 (2019)	농촌개발사업의 사회적 자본, 물리적 환경조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6개 마을의 사례와 설문조사통해 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함
전미리 (2019)	농촌개발사업에서 사회적자본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을 주민통합성과 연계성 2개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함
황영섭 (2021)	사회적 자본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적, 물적 자본 등과 결합 통한 큰 생산성과 자체 질적 성장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야하므로, 농어촌개발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김영옥외 (2022)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참여, 사회적 자본, 생활만족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마을만들기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등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함
이영수 (2022)	사회적 자본의 모든 하위 지표들은 실증적 유형에서 결과, 개념, 기능적으로 양극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의 하위지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하위지표들의 수준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입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2.4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2.4.1 사업성과의 평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사업성과는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평가지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의 평가지표도 그러하다.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로 구분할 때 정량적 성과는 수치상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요인이 명확해 질 수 있지만, 정성적 성과의 요인은 너무 다양하여 몇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상향식 개발사업이 시작된 2000년대 초기의 사업성과는 주민소득 증가, 방문객 수, 인구증대, 일자리 창출, 시설물 활용도, 기초생활수준 향상 등의 경제적 성과, 정량화된 성과 등의 분석이 다수를 이루었다(김은정, 2022). 초기 사업성과를 다룬 연구에서도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에서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방문객 수 증대, 마을마케팅, 지가상승, 생활환경개선, 마을경관개선, 난개발, 개발행위 활발, 주민참여 확대, 주민갈등 확대, 거주인구 증가 등을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송미령, 성주인, 2004; 송미령, 성주인, 2005).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성공적인 발전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주체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공동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사업 등을 개발·육성하도록 컨설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지역 소득과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김기성, 정미경, 2020; 이현주, 서지현, 2021).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민역량강화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업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다룬 연구가 많았고, 성과측정지표 또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에서의 시설물의 활용도나 소득증대 등의 정량적 지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는 인구 증가율, 법인 소득 증가액, 역량강화교육 참여 횟수, 방문객 증가 수, 친환경 면적 증가율 등 주로 하드웨어 부문과 산출에 집중되었으며, 선행연구들에서도 대부분 산출이나 시설 운영, 조직체계 구성 여부를 중심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송미령, 성주인, 2004; 송미령, 성주인, 2005; 홍성규, 김경량, 최윤상, 2006; 소순열, 2007; 김명룡, 2008; 허주열, 이성근, 2009; 채종훈, 2010; 최영완, 2015),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관점에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객관화시켜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주민참여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소홀히 다루졌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 의식 변화와 자긍심 고취, 공동체 활성화, 주민만족도 등의 주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평가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김도덕, 2016; 송미령 외, 2017; 허완, 조현구, 2018; 전미리, 2019; 홍영호, 2019; 김효성, 2020; 김기성, 정미경, 2020; 이현주, 서지은, 2021; 고성일, 임화순, 2021; 김은정, 2022).

허완 외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프로세스를 사업 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가로 나누고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성과목표의 달성도, 파급효과, 연계협력 등으로 구분하였다(허완, 조현구, 2018; 허완, 2018). 백경문 외는 농촌마을 컨설팅의 주민만족도와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나누고 재무적 성과는 컨설팅 후 매출액 증가, 마을사업의 전반적 향상, 실무진의 급여 인상으로 구분하였고, 비재무적 성과는 마을방문객 만족도 향상, 마을인지도 향상, 주민 간의 의사소통 향상 등으로 구분하였다(백경문, 장동헌, 2019).

김효성은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내부성과와 외부성과로 구분하고 내부성과는 기초생활수준 향상, 지역어메니티 증진, 소득 및 방문객 증가, 삶의 질 향상, 외부성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의식 함양 등을 구성

요소로 하였다(김효성, 2020).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사업성과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역량강화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S/W)적인 정성평가를 검증하고 일반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즉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요인으로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를 성과 평가 구성요소로 활용하였으며, 주민참여행동은 개인적 측면, 공동체활성화는 공동체적 측면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주민참여행동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의도와 인과관계로서 제시하며, 참여의도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사업의 성과를 이끌었는지 부분과 그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결과로 제시하였다. [표2-14]는 선행연구를 반영한 사업성과의 평가지표를 나타낸다.

[표2-14] 사업성과의 평가지표

연구자	구성요소
송미령외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 - 경제적 측면: 방문객수 증대, 마을마케팅, 지가상승 - 환경적 측면: 생활환경 개선, 마을경관 개선, 난개발, 개발행위 활발 - 사회적 측면: 주민참여 확대, 주민갈등 확대, 거주인구 증가
송미령외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 주체 및 지원조직, 사업의 목표와 내용, 인적자원과 역량강화시스템,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사업추진 네트워크, 외부환경 요인
허완 (2018)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의 달성도, 파급효과, 연계협력
백경문외 (2019)	농촌마을 컨설팅의 주민만족도와 사업성과 - 재무적 성과: 컨설팅후 매출액 증가, 마을사업의 전반적 향상, 실무진의 급여인상 - 비재무적 성과: 마을방문객 만족도향상, 마을인지도 향상, 주민간의 의사소통 향상
김효성 (2020)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 성과 - 내부성과: 소득 및 방문객 증가, 기초생활수준 향상, 지역어메니티 증진, 삶의 질 향상 - 외부성과: 주민자치의식 함양, 지역공동체 활성화

2.4.1.1 주민참여행동

Fishbein & Ajzen의 합리적 행위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이를 발전시킨 Ajzen의 계획된 행위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개인의 행위와 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 개인의 행위는 행위의도에 의해 유발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인간의 행동은 행동의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이를 농어촌개발사업에 적용해볼 때,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개인의 행위는 참여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주민참여의도는 주민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도에서의 영향 관계 중 하나로 주민참여행동을 제시하였다.

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대상에 반응하는 것으로 태도의 외형적 표출이며 개인의 태도 변화 행동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변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치와 태도의 목적물이 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조록환, 2003). 행동으로 나타나는 참여란 이해당사자들 자신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를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McCracken & Narayan, 1998; Rydin, 1999).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안책의 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에 있어 참여 자체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 부족 또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Simmons는 관광개발에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주민은 관광목적지의 적절한 환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immons, 1994).

주민참여행동의 개념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정환용은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나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과정이라 하였다(정환용, 2001). 서유영은 지역사회인 동네에 기반을 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서유영, 2013). 정희동은 주민참여행동이란 공식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정희동, 2016).

주민참여행동은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 및 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의 변화,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고양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개인 집단조직 상호 간 이익이 되는 공동목표나 공동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함께 일하거나 행동하는데 필요하며, 공유된 가치와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김세용, 2002; 오정학, 윤유식, 2009; 정봉섭, 2010). 류인평 외는 지역주민의 참여행동을 적극적 참여행동, 소극적 참여행동, 참여의사 없음으로 요인을 구성하였고, 전대희는 주민참여행동의 요인으로 적극적 참여, 적극적 지지, 적극적 추천 3가지 항목을 단일요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류인평, 박용배, 2006; 전대희, 2018).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행동의 개념에 대해 ‘농어촌개발사업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민 구성원이 참여의도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의 성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4.1.2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Tönnies(1995)는 사회형태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고, 공동사회는 사랑과 우정을 기본으로 정서적으로 맺어진 집단으로 가족, 친족, 신앙공동체를 들고 있고, 이익사회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해관계로 맺어진 집단으로 회사를 예로 들었다(김영주, 2021). Hillery는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공통의 유대를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Hillery, 1955).

농어촌개발사업에서 ‘공동체’는 흔히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공동체의 개념에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마을주민 간의 상호작용, 주민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Hillery, 1955).

일정한 지리적 영역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을 공유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이며, 주민 간 상호작용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적 활동을 통하여 상호 영향을 받아가는 과정을 말하며, 주민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주민 간에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하현상, 이기태, 2017). 지역현안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때, 주민자치역량이 배가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고민과 참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다(소순열, 2007).

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참여, 의사결정, 공동체 활동, 권한 부여, 공동체 역량 구축, 네트워킹, 공동체 개발, 공동체 소유권 및 권리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과 연결된다. 이러한 모든 전략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WHO, 2002; Davids, Theron & Maphunye, 2005; Riswan, 2022).

양덕순 외는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 일정한 공간적 영역에서 ‘우리’라는 상호간의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 집단의 단위를 지역공동체로 정의하고, 공동체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등을 제시하였다(양덕순, 강영순, 2008).

최봉명(2012)은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조건에서 문화, 환경, 경제적인 문제와 같이 마을의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마을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투표하고 결정하는 방식인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김영주, 2021).

하현상 외는 마을공동체의 개념에 대해 일정한 정주 공간 내에서 정서적 유대감과 공동의 목표 또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하현상, 이기태, 2017).

김영주는 마을공동체 개념에 대해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마을 범주내에 위치한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마을공동체 활동에는 마을의 쓰레기 줍기, 유희공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함께 모여 모임을 형성한 취미활동, 교육활동, 문화생활 등을 예로 들었다(김영주, 202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지원,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수영, 오찬옥, 문경주, 류지선, 2014; 김영주, 2021). 또한 다양한 마을 프로그램의 운영, 주민참여, 지역만의 특색을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여관현, 2013; 최지민, 황선영, 김순은, 2016).

일부의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로 인한 ‘보살핌’의 역할을 성공 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최희영, 이희정, 2014). 박준규 외는 공동체 활성화 구성항목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 자치단체의 지원, 이웃 관계, 마을 행사 참여도 향상을 들고 있다(박준규, 김민수, 김영하, 20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 ‘일정한 공간적 영역을 공유하는 마을 주민들이 정서적 유대감과 공동의 목표,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여 성취하는 주관적 가치의 성과’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4.2 사업성과의 선행연구

주민참여형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사업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진은 사업이 완료된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성과에 대한 주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와 같은 사회적 관계 관련 변수가 중요하다고 확인하였다(이해진, 2012)

안상유는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경제적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로 구분하고, 주민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물리적 및 환경적 요인, 행정 및 거버넌스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주민 만족도 주요 영향요인으로 행정지원 충분성, 주민참여 기회,

사업주체들간 협동성, 공공시설 충분성, 마을지도자 리더십, 공동체 애착 등을 들었다(안상유, 2013).

이상준 외는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23개소, 지방소도읍육성사업 46개소,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104개소 등 총 173개소의 농촌중심지를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들은 주민주도의 사업계획수립과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상향식 지역개발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읍면발전협의회와 추진위원회 등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상준, 한상욱, 오명택, 고혜진, 2014).

김영주 외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마을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참여와 상호협조, 마을 구성원간의 신뢰도 형성, 유능한 지도자의 역할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김영주, 은희창, 최영완, 박현용, 2014).

송미령 외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는 상향식 주민참여 개발방식의 도입 및 확산이며, 주민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마을생활환경 정비,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인구증가로 인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주민편의 증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송미령 외, 2017; 김효성, 2020)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크게 인구 유지와 공동체 활성화(인구·사회적 성과), 주민소득증대(경제적 성과), 기초생활수준 향상 및 어메니티 증진(주민 문화·복지·향상 성과), 계획적인 개발 및 지역특화 발전(공간개발 성과)으로 구분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의 핵심 성공 요인의 주요 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송미령 외, 2017)

박준규 외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공간환경 개선, 농촌지역 활력증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들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공동체 활동 활성화와의 인과관계가 미흡하다고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역민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준규, 김민수, 김영하, 2017).

박기관은 사례 연구에서는 농촌마을만들기사업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새로운 시설투자사업 그리고 지역역량사업의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의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다(박기관, 2017).

허완 외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효과분석에서 사업기획 단계에서의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주민참여는 성과목표 달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급효과 및 연계협력에 있어서는 사업집행단계의 추진체계 운영 효율성을 매개하여 성과가 나타난다고 확인하였다(허완, 조현구, 2018).

하현상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로써 경제적 성과를 매출액, 고용창출, 가구소득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도로 구분하였으며, 사업의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체계적 활용 여부,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여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구성 여부, 체계적인 모니터링 여부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하현상, 2018).

김기성 외는 기존 연구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효과측정을 위한 주요 지표가 하드웨어(H/W) 부문과 산출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논리 모델을 활용한 결과평가의 적용을 통해 사례 대상지내 구체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 및 결과 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였다(김기성, 정미경, 2020).

김효성은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내·외부 성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 요인이 사업성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다음으로 행정지원의 충분성 및 지자체 관심 요인, 사업내용의 충실성, 주민참여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하였다(김효성, 2020).

이현주 외는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의 전략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마을공동체 구현, 지역가치강화, 주민역량강화, 지역경제육성에 대해 주민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 중장기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효과의 지속성의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현주, 서지은, 2021).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2-15]와 같다.

[표2-15] 사업성과의 농어촌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이해진 (2009)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회적 자본, 주민참여 등이며,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변수가 중요함을 확인
안상유 (2013)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경제적, 사회적 만족도로 구분하고, 주민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행정 및 거버넌스 요인, 물리적 및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결과적으로 주민참여기회 확대, 충분한 행정지원, 사업 주체들간 협동, 충분한 공공시설, 지도자 리더십, 공동체 애착 등이 주민만족도를 높인다고 확인
김영주외 (2014)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방안에서 마을주민의 자율적, 적극적 사업참여와 협조, 마을 구성원간의 신뢰, 리더의 역할을 성공요인으로 꼽음
송미령 외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성과 분석에서 인구유지와 공동체활성화, 주민소득증대, 기초생활수준향상, 어메니티증진, 계획적인 개발 지역특화발전 등으로 구분함
박준규외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지역주민 삶의 질 영향분석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는 공동체 활동 활성화와의 인과관계가 미흡하다고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함
허완 (2018)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효과 분석에서, 전국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 시군 대상으로 공식 사업평가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기획 단계의 주민참여가 사업 진행 단계의 매개효과를 통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하현상 (2018)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체계적 활용, 내부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구성, 체계적 모니터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함
김효성 (2020)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내외부 성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 요인이 사업성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행정지원 충분성 및 지자체 관심요인, 사업내용의 충실성과 주민참여 요인 순으로 나타남
김기성외 (2020)	기존연구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효과측정위한 주요 지표가 하드웨어부분과 산출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논리모형을 활용한 결과평가의 적용을 통해 사례대상지내 구체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및 결과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함
이현주외 (2021)	마을공동체 구현, 지역가치강화, 주민역량강화, 지역경제육성에 대해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 중장기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효과의 지속성의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Ⅲ.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포괄보조금 제도에 따라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그에 따른 주민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에 대해 무관심하고 참여율이 낮아 사업완료 이후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주민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 조명을 해보고, 거기에 최근 농어촌 공동체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체에 내재된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간접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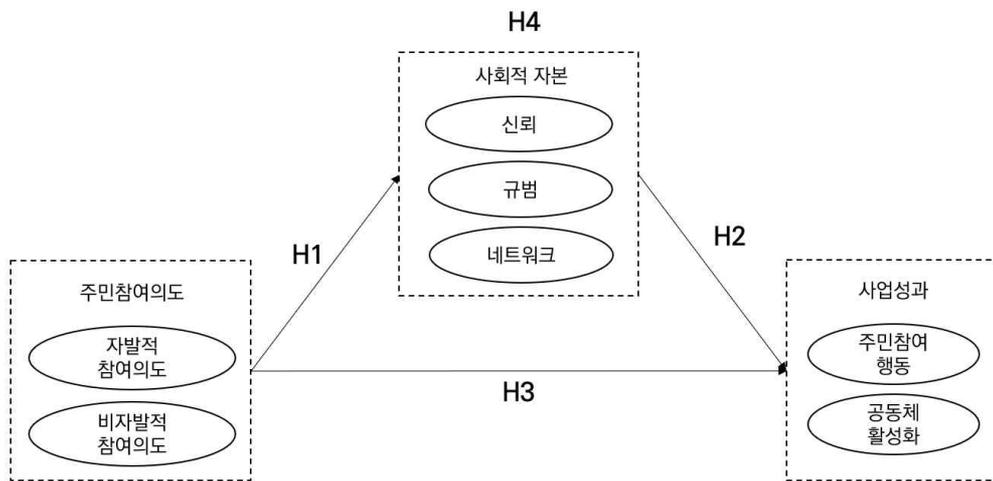
여기에서 독립변수인 ‘참여의도’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에서 ‘의도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의도성을 가진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의도에 대해 Zimmerman의 능동적 참여와 수동적 참여 그리고 Arnstein과 Wates의 연구를 발전시킨 OECD의 구분을 농어촌개발사업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자발적 참여의도와 비자발적 참여의도 2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Zimmerman, 1986; Arnstein, 1969; Wates, 2000; OECD, 2001).

농어촌공동체를 형성하고 촉진하는 요소로 제시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Putnam(1993)이 제시한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하위요소로 구성하여 생활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역량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단기간에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그리고 선행연구들이 주관적 평가에 대해 소홀히 다뤄졌던 점을 감안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보다 주민역량강화 관점의 요소를 가미한 정성적 평가지표를 구성요소로 하였다. 하위요소로는 독립변수에서 다른 주민참여의도에 대한 인과적 결과물로 제시한 주민참여행동, 즉 ‘주민참여행동’을 통해 마을내 구성원

개인이 사업에서 지향하는 목표 성과와 마을공동체가 사업성으로 지향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각각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 참여와 사업성으로 관한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참여의도(자발적 참여의도, 비자발적 참여의도), 매개변수는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종속변수는 사업성(주민참여행동, 공동체 활성화)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3-1] 연구모형

3.2 연구 가설

3.2.1 주민참여의도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단순히 정책 및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운영,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전미리, 2019), 농어촌개발에서 주민참여의도는 주민들의 참여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와 복원을 위해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농어촌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요인 중의 하나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주도형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들에게 강하게 내재되어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농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시키고, 네트워크 형성과 신뢰 구축 등을 통해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적 협력 문제를 극복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도출한다고 보았다(강대기, 2004; 전미리, 2019).

고진숙 외는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주민참여의도 및 주민참여에 필수적인 자본임을 확인하였다(고진숙, 서영수, 2016). 전미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이 주민의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은 참여의도 영향요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을 매개하여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전미리, 2019). 황영섭 외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중 교육, 컨설팅이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을 매개로 사업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 인식 수준과 사업참여 의도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주민참여의도와 사회적 자본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주민참여의도는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5)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6)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사회적 자본과 사업성과와의 관계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회관계를 형성하려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직 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효과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한다(Putnam, 1993). 따라서 농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참여를 통한 관계 형성과 사업성으로 이어지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중요할 것이다.

농어촌개발사업과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농촌 지역발전과 연관성이 있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진영, 2019). 사업성고가 우수한 마을의 경우 사회적 자본 수준이 성과가 부진한 마을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박영민, 서진완, 2014), 사회적 자본은 사업성고를 이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박수진 외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로서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지를 검증하였고, 주민참여 수준과 사업 및 삶의 만족도를 함께 제고해야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박수진, 나주몽, 2015).

노병찬 외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참여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에서 지역민의 네트워크, 규범 요인 강화를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이외에 주민들의 다양한 자발적 공동체 활동의 참여 기회 마련,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노병찬, 주덕, 2016).

박기관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과 새로운 시설투자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기관, 201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사업성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사회적 자본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신뢰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신뢰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규범은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규범은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네트워크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네트워크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참여의도와 사업성과와의 관계

Fishbein & Ajzen의 합리적 행위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이를 발전시킨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개인의 행위와 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 개인의 행위는 행위 의도에 의해 유발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인간의 행동은 행동의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1991).

이를 농어촌개발사업에 적용해 볼 때,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개인의 행위는 참여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주민참여의도는 주민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허주열 외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 내용을 실질적 주민참여와 추진단계별 주민참여로 구분하여 추진위원회 비해 일반주민의 참여도가 낮음을 확인하고 일반주민들의 단계별 참여유도방안을 제시하였다(허주열, 이성근, 2009).

박수진 외는 표면적 주민참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이끌지 못하고, 사업시설 유치와 관련해 마을간, 주민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박수진, 나주몽, 송인성, 2013). 고진숙 외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의도가 높으면, 실제 주민참여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강기호는 주민참여를 협력적 참여와 협의적 참여로 구분하여 협의적 참여는 사업성과에 긍정적, 협력적 참여는 마을의 내발적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고진숙, 서영수, 2017; 강기호, 2018, 전미리, 2019). 허완 외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효과 분석에서 종속변수인 사업성과의 요인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목표 달성도, 파급효과 및 연계협력 성과로 설정하여, 정성적 성과를 측정하였다(허완, 조현구, 2018).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도가 사업성과 중 정성적 평가요인인 주민참여 행동과 공동체활성화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위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주민참여의도는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사회적 자본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성 요인이라는 점은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이일권, 2018; 이상범, 2018; 전미리, 2019; 고진영, 2019; 황영섭, 2021). 그 중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근거를 도입하여 농촌개발협력사업의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규범, 행동, 경쟁, 임파워먼트 등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매개로 주민만족도에 대한 간접효과를 가진다고 확인하였다(이일권, 2018).

이상범은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는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에 대해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다고 확인하였다(이상범, 2018).

황영섭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개발사업 참여의지의 형성에서 사업성과와 참여의도 사이에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영섭, 2021).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4) 사회적 자본은 주민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 매개할 것이다.

- 4-1) 신뢰는 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 4-2) 규범은 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 4-3) 네트워크는 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 4-4) 신뢰는 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 4-5) 규범은 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 4-6) 네트워크는 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 4-7) 신뢰는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 4-8) 규범은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 4-9) 네트워크는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 4-10) 신뢰는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 4-11) 규범은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 4-12) 네트워크는 비자발적 주민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상기 연구가설을 요약정리한 내용은 [표3-1]과 같다.

[표3-1] 연구가설 요약

번호	연구 가설
H1	주민참여의도는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자발적 참여의도는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자발적 참여의도는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자발적 참여의도는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적 자본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신뢰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신뢰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규범은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규범은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네트워크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6	네트워크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주민참여의도는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자발적 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자발적 참여의도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사회적 자본은 주민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 매개할 것이다.
H4-1	신뢰는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H4-2	규범은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H4-3	네트워크는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H4-4	신뢰는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H4-5	규범은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H4-6	네트워크는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H4-7	신뢰는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H4-8	규범은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H4-9	네트워크는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매개할 것이다.
H4-10	신뢰는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H4-11	규범은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H4-12	네트워크는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매개할 것이다.

3.3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3.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주민참여의도(자발적 참여의도,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종속변수인 사업성과(주민 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로서 총 7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채택한 잠재변수는 그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변수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정의와 함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3.3.1.1. 주민참여의도

선행연구에서 주민참여 의도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 자신에게 돌아올 긍정적 결과를 예측하거나 또는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과정의 참여 의향 등을 나타내고, 해당마을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의지’라고 정의하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Engel & Blackwell, 1982; 황동열, 류희진, 2015; 고진숙, 서영수, 2016). 또한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 의도는 개발사업의 시행부터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전미리, 2019).

선행연구에서는 Arnstein(1969)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Wates(2000), OECD(2001) 등이 변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다수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개발사업에 적합한 주민참여 요소를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주민참여의 측정요소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Zimmerman 과 Lyons & Lowery, Arnstein, OECD의 구성요소를 농어촌개발사업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Zimmerman, Lyons & Lowery의 능동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적극적 참여는 자발적 참여로, 수동적 참여, 제도적 참여, 소극적 참여는

비자발적 참여로 수정하였다. Arnstein의 실질적 참여는 능동적 참여, 형식적 참여는 비자발적 참여로 분류하였고, OECD의 정보제공과 협의(일부)는 비자발적 참여, 협의(일부)와 능동적 참여는 자발적 참여로 측정요소들을 분류하여 적절히 문항을 배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먼저 주민참여의도란 ‘지역주민들이 사회문제의 직·간접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역개발의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려는 일련의 의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자발적 참여의도는 ‘개인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비제도적, 실질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이며,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개인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제도적, 형식적, 수동적, 소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3.3.1.2. 사회적 자본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 상호간에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와 제도화된 관계 인정의 결과로 나타난 각 구성원들간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 정의하였고, 이후 Coleman(1988, 1990), Putman(1990), Woolcock(2000), OECD(2001) 등에 의해 발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Putman이 제시한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였다. 신뢰는 본질적인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핵심으로 꼽기도 한다(Putman, 1993; Coleman, 1990; Helliwell, 2006; Bjørnskov, 2006; 원동재, 2013; 황영섭, 2021). 선행연구에서 신뢰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기대, 주관적 믿음, 배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푸는 호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Coleman, 1990; 박세경, 김형용, 강혜규, 박소현, 2008; 이성조, 2013; 전미리, 2019; 황영섭, 2021).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란 ‘사업참여를 위한 가장 가본이 되는 요소이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강한 소속감과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주관적

믿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규범이란 긴 시간에 걸쳐 사회에 수용된 행동규칙이며, 무임승차와 같은 공공재 문제의 극복에 도움을 주며, 개인의 이기적 사고를 제어하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Coleman, 1988; Putnam, 1993; 이성조, 2013). 본 연구에서는 규범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 '오랜 기간 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 행동 규칙으로, 농촌공동체내 공공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유인책'으로 정하였다.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연계 형태로 주민들간의 협력의 기초이자 내부적 정보교류와 함께 행정기관, 외부전문가 등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발전 방향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Coleman, 1990; Putnam, 1993; 원동재, 2013; 성기호, 2015; 배광빈, 류인권, 2020; 이영수, 2022).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정의는 '주민들간의 유대나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요소 도입과 발전적 방향을 이끌어가는 관계 구조'로 정의하고자 한다.

3.3.1.3. 사업성과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평가지표 중 2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즉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요인으로써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 활성화가 그것이다.

주민참여행동은 인간의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Fishbein & Ajzen의 합리적 행위이론과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였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에서 개인의 행위는 참여의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주민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민참여행동이란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이나 계획 추진에 대해 주민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또는 직간접적인 참여나 실질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정환용, 2001; 서유영, 2013; 정희동, 2016).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행동이란 '농어촌개발사업에서 공식

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민 구성원이 참여의도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의 성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해서 흔히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 개념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란 일정한 지리적 영역, 마을주민 간의 상호작용, 주민 간의 정서적 유대감, 공동의 목표와 가치,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 정서적 친밀감 등의 키워드로 정의된다(Hillery, 1955; 양덕순, 강영순, 2008; 이해진, 2009; 하현상, 이기태, 2017).

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참여, 의사결정, 공동체 활동, 권한 부여, 공동체 역량 구축, 네트워킹, 공동체 개발, 공동체 소유권 및 권리 등의 다양한 활동, 지속가능성 보장 등과 연결된다(WHO, 2002; Davids, Theron & Maphunye, 2005; Riswan, 2022).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일정한 공간적 영역을 공유하는 마을 주민들이 정서적 유대감과 공동의 목표,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하는 주관적 가치의 성과'라고 정하였다.

이상으로 여러 문헌의 고찰을 통해 각 잠재변수에 대한 개념들을 연구에 맞게 조작화한 정의는 [표3-2]와 같다.

[표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잠재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 문헌
참여 의도	자발적 참여의도	개인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비제도적, 실질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	Arnstein(1969), Zimmerman(1986), Engel&Blackwell(1982),
	비자발적 참여의도	개인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이라기보다 제도적, 형식적, 수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	Lyons & Lowery(1986), OECD(2001)
사회적 자본	신뢰	사업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강한 소속감과 상호작용속의 존재하는 주관적 믿음	Putnam(1993), Coleman(1988), 박세경외(2008)
	규범	오랜기간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 행동 규칙으로, 농촌공동체내 공공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유인책	원동재(2013), 이성조(2013), 성기호(2015), 전미리(2019),
	네트워크	주민들간의 유대나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요소 도입과 발전적 방향을 이끌어가는 관계 구조	배광빈외(2020), 황영섭(2021) 이영수(2022)
사업 성과	주민참여 행동	농어촌개발사업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민 구성원이 참여의도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의 성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Fishbein&Ajzen(1975), Ajzen(1991), 정환용(2001), 서유영(2013) 정희동(2016)
	공동체 활성화	일정한 공간적 영역을 공유하는 마을 주민들이 정서적 유대감과 공동의 목표,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하는 주관적 가치의 성과	Hillery(1955), WHO(2002), Davids etal(2005), 이해진(2009), 양덕순외(2008), 하현상외(2017), Riswan(2022)

3.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7개의 연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47개 문항과,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0개 항목을 합쳐서 총 57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항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하였고,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각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참여의도에 관한 연구변수가 2개 16개 문항,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변수가 3개 18개 문항,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변수는 2개 13개 문항, 그리고 응답자의 일반특성 10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질문 이외에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설문 항목은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참조한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다음 [표3-3]과 같다.

[표3-3] 설문지의 구성

변수명		설문내용	문항수	척도	출처
참여 의도	자발적 참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견을 말할 것이다.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견을 수집할 것이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관련자와 소통할 것이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우수마을 사례를 찾아볼 것이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직책을 맡을 의사가 있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시간을 많이 투자할 의사가 있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력을 유도할 것이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주민회의 시간을 만들 것이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9	Likert 5점 척도	Arnstein (1969), Zimmerman(1986), Engel&Blackwell(1982), Lyons & Lowery (1986), OECD (2001)

변수명	설문내용	문항수	척도	출처	
비자발적 참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지를 읽을 것이다.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것이다.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것이다.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문조사에 협조할 것이다.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교육에 참석할 것이다. 	7			
사회적 자본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주민들은 서로 신뢰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간 약속을 잘 지킨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단체를 신뢰한다. -마을주민들은 마을리더를 신뢰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신뢰한다. -마을 주민들은 사업추진시 전문가나 행정 등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6	Likert 5점 척도	Putnam (1993), Coleman (1988), 박세경외 (2008) 원동재 (2013), 이성조 (2013), 성기호 (2015), 전미리 (2019), 배광빈외 (2020), 황영섭 (2021)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주민들은 마을규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규범을 통해 마을운영을 결정한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운영을 위한 체계가 잘 마련돼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운영체계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마을주민들은 지자체의 정책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잘 준수한다. -마을주민들은 갑작스런 사건사고 재난에 처했을 때 이웃 및 마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런 사건사고 재난에 처했을 때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변수명	설문내용	문항수	척도	출처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주민들은 모임(회의)를 자주 하는 편이다 -마을 주민들은 정보를 잘 공유한다. -마을주민들은 교류를 위한 모임(회의)에 잘 참석한다. -마을주민들은 주민간 교류활동에 만족해 한다. -마을주민들은 이웃마을간의 교류 및 유대가 많다. 	5		
사업성과	주민참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설명회 등에 참여하였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대하였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는 사업추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았다. 	5	Likert 5점 척도	Fishbein&Ajzen (1975), Ajzen (1991), 정환용 (2001), 서유영 (2013) 정희동 (2016)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과 참여가 늘어났다. -우리 마을만의 특성있는 사업모젤이 만들어졌다. -개인이익보다 마을과 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우선 생각한다.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마을발전에 힘쓰는 새로운 리더와 일꾼들이 생겨났다.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발전 조직이나 모임들이 생겨났다. -도시민의 이주나 방문, 교류가 늘어났다. -마을이나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8	Likert 5점 척도	Hillery (1955), WHO (2002), Davids etal (2005), 이해진 (2009), 양덕순외 (2008), 하현상외 (2017)
인구통계 및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연평균소득, 거주지역, 거주기간	10	명목/비율 척도	
합계		57		

3.3.3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의도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표본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마을/권역/읍면소재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 전남지역내 사업대상지로 한정하였고, 표본 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에 의한 판단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은 표본프레임이 없어 모집단에 속한 각각의 구성원들이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이훈영, 2019).

또한 조사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판단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이훈영, 2019). 즉 현장을 방문하고 설문을 진행하기 전에 설문대상자들에게 해당 지역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명칭과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파악한 후, 사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은 설문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기간은 2021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였고, 그 결과 10개 지자체, 14개 사업지구에서 총 238개의 유효표본을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3-4]는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3-4]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내용

구분	내용
모집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사업대상지내 주민
표본	전남지역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마을/권역/읍면소재지 주민
표본추출방법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판단표본추출법
조사기간	2021. 9. 20. ~ 2021. 11. 30. (10주간)
조사방법	현장방문 서면조사
표본의 크기	총 238부

3.3.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패키지는 SPSS 22.0과 AMOS 22.0, 그리고 PROCESS macro 3.5와 SmartPLS 3.3.7을 사용하였다. SPSS 22.0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데이터 검토를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 중 선행연구를 활용하였으나, 연구 목적을 위해 수정 및 보완한 참여의도, 사업성과 등의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22.0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변수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변인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함으로써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매개효과분석에서는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였고, 가설검증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증을 확보하기 위해 SmartPLS로 다중집단분석 등의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세부 자료 분석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성별, 연령, 사업 특성 등 인구통계학 및 일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PSS 22.0을 통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데이터의 정규분포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SPSS 2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각 요인들에 대한 설문항목들의 일관성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coefficient alphas(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넷째, 수집한 자료의 편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Herman의 단일요인검정(Single-Factor Test)방식으로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AMOS 22.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AMOS 22.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방식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고,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검정을 위해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연구 가설을 검정하였다.

일곱째,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매개효과분석은 PROCESS marco 3.5를 사용하여 Bootstrap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덟째, 가설검증에 따른 논리적인 확인을 위해 SmartPLS 3.3.7을 활용하여 PLS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하고, 부문별 세부적 다중집단분석(MGA)을 실시하였다.

IV. 실증 분석

4.1 표본의 특성

4.1.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1]과 같다.

우선, 추진한 사업구분 분포를 살펴보면,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36.6%로 가장 많았고, 2019년부터 신규 사업이 종료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26.9%, 그 뒤로 마을만들기사업 22.7%,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9.7%, 시군역량강화사업 4.2% 순이었다.

농촌다움복원사업은 설문응답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서 역할 분포를 살펴보면, 리더 및 위원장이 16.8%, 추진위원이 15.1%, 사무장은 6.7%였으며, 일반주민이 61.3%로 가장 많았다. 사업의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응답은 45.0%,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응답이 55.0%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51.3%, 여성이 48.7%로 비슷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은 60대가 38.7%, 50대가 26.9%, 70대 이상이 18.5%, 40대가 10.1%, 30대이하가 5.9%로 농어촌지역을 감안할 때 60대 이상 인구가 가장 많고, 40대 이하 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 졸업 32.8%, 전문대 졸업 9.2%, 대학원 이상 5.0% 순이었다.

직업으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42.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11.8%), 서비스업(7.6%), 회사원(6.7%) 순이었으며, 특히 고령의 응답자 비율이 많은 만큼 무직의 응답 비율도 8.4%에 달하였다. 소득의 경우 1~3천만원 이하 34.5%, 1천만원 이하 29.4%, 3~5천만원 이하 26.9%였으며 5천만원 이상은 전체 9.2%에 불과하였다. 거주기간은 30년 이상이 44.5%로 가장 많았고, 1~9년, 10~19년이 각각 16.8%를 차지했으며 20~29년 19.3%, 1년미만 2.5% 순이

었다. 응답자별 해당 지자체는 나주시가 21.0%, 담양군이 16.0%였으며, 장성군(9.2%), 함평군(8.8%), 영광군(8.8%), 광양시(8.8%), 고흥군(7.6%) 등으로 나타났다.

[표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N=238)

		구분	빈도(명)	비율(%)
사업 특성	사업 구분	농촌중심지활성화	87	36.6
		기초생활거점육성	23	9.7
		시군역량강화	10	4.2
		마을만들기	54	22.7
		권역단위종합정비	64	26.9
		농촌다움복원	0	0
	역할	리더/위원장	40	16.8
		추진위원	36	15.1
		사무장	16	6.7
		일반주민	146	61.3
추진 현황	사업진행중	107	45.0	
	사업완료	131	55.0	
일반 특성	성별	남성	122	51.3
		여성	116	48.7
	연령	30대이하	14	5.9
		40대	24	10.1
		50대	64	26.9
		60대	92	38.7
		70대이상	44	18.5
	최종 학력	중졸이하	38	16.0
		고졸	88	37.0
		전문대졸	22	9.2
		대졸	78	32.8
		대학원이상	12	5.0
	직업	농림어업	102	42.9
		회사원	16	6.7
		자영업	28	11.8
서비스업		18	7.6	
전문직		16	6.7	
학생		2	0.8	

구분		빈도(명)	비율(%)	
		무직	20	8.4
		기타	36	15.1
	소득	1천만이하	70	29.4
		1~3천만이하	82	34.5
		3~5천만이하	64	26.9
		5~7천만이하	10	4.2
		7천~1억이하	6	2.5
		1억이상	6	2.5
		거주 기간	1년미만	6
	1-9년		40	16.8
	10-19년		40	16.8
	20-29년		46	19.3
	30년이상		106	44.5
	해당 지자체	고흥군	18	7.6
		광양시	21	8.8
		나주시	50	21.0
		담양군	38	16.0
		무안군	17	7.1
		신안군	16	6.7
		영광군	21	8.8
장성군		22	9.2	
함평군		21	8.8	
해남군		14	5.9	

4.1.2 기술적 통계분석

표본에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한 분포와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하여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표준편차는 0.653(네트워크4)에서 0.978(자발5)까지로 모두 ± 3 이내에 들어와 이상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측정하였다. 표본이 정규성을 띤다는 것은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왜도는 분포의 대칭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 첨도는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지를 평가하는 값을 말한다. 왜도와 첨도의 값은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상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신건권, 2018), ± 3 이내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개별 측정변수들이 정규성을 띤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일현, 2016).

제시된 결과를 보면, 왜도는 -0.579(공동체1)에서 0.332(신뢰5)까지, 첨도는 -1.265(주민참여2)에서 0.760(공동체4)까지 모두 절대값 3 이내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개별 측정변수들은 모두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4-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립 변수	자발 참여 의도	자발1	238	4.13	.706	-.328	-.458
		자발2	238	4.01	.729	-.013	-1.109
		자발3	238	3.99	.847	-.488	-.013
		자발4	238	3.86	.772	-.193	-.443
		자발5	238	3.56	.978	-.561	.279
		자발6	238	3.63	.820	-.332	.566
		자발7	238	3.89	.799	-.101	-.806
		자발8	238	3.85	.818	-.461	.310
		자발9	238	3.87	.831	-.455	.201
	비자발 참여 의도	비자발1	238	3.98	.711	-.259	-.228
		비자발2	238	3.99	.681	.010	-.828
		비자발3	238	4.03	.699	-.196	-.474
비자발4		238	3.93	.696	.091	-.925	

측정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비자발5	238	4.01	.806	-.405	-.459
		비자발6	238	4.11	.721	-.167	-1.058
		비자발7	238	4.03	.740	-.166	-.802
매개 변수	신뢰	신뢰1	238	3.88	.759	-.266	-.284
		신뢰2	238	3.87	.768	-.104	-.612
		신뢰3	238	3.89	.721	-.106	-.457
		신뢰4	238	4.05	.733	-.338	-.337
		신뢰5	238	3.74	.740	.332	-.890
		신뢰6	238	3.60	.815	-.079	-.484
	규범	규범1	238	3.52	.810	-.357	.527
		규범2	238	3.78	.748	.014	-.569
		규범3	238	3.59	.716	.103	-.311
		규범4	238	3.64	.732	.031	-.344
		규범5	238	3.54	.788	-.021	.127
		규범6	238	3.82	.765	-.260	.361
		규범7	238	3.71	.770	.094	-.615
	네트 워크	네트워크1	238	3.66	.814	-.162	.023
		네트워크2	238	3.76	.659	-.243	.129
		네트워크3	238	3.83	.691	-.229	.005
		네트워크4	238	3.81	.653	-.331	.344
		네트워크5	238	3.64	.775	-.391	.434
종속 변수	주민 참여 행동	주민참여1	238	3.95	.866	-.391	-.648
		주민참여2	238	4.08	.828	-.248	-1.265
		주민참여3	238	3.94	.727	-.043	-.766
		주민참여4	238	4.00	.862	-.160	-1.281
		주민참여5	238	3.90	.735	.018	-.841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1	238	3.57	.730	-.579	.682
		공동체2	238	3.40	.865	-.488	.212
		공동체3	238	3.77	.826	-.461	.269
		공동체4	238	3.68	.869	-.518	.760
		공동체5	238	3.46	.788	-.083	.106
		공동체6	238	3.44	.787	-.342	.568
		공동체7	238	3.30	.905	-.154	-.127
		공동체8	238	3.70	.783	-.174	.199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4.2.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하였다. 우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변수들간의 구조를 조사하고, 통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변수와 요인간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한다(최창호, 유연우, 2017b).

요인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묶어줌으로써 변수를 축소시키며, 요인적재치는 변수들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수치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낮다고 보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치가 0.4이하일 때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우종필, 2017; 송지준, 2019). 탐색적 요인분석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이론 생성과정에 가깝고, 데이터 지향적인 성격을 띤다(Van Praijen & Van der Kloot, 2001; 최창호, 유연우, 2017b).

고유값(eigenvalue)은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분산의 크기를 의미하며, 고유값은 한 요인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값의 자승합으로 각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고유값 1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요인을 결정한다(우수명, 2019). 고유값이 크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높고, 개념적 일관성이 높다는 의미이다(우수명, 2019).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모든 측정변수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의 단순화를 위해 요인들간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며 회전하는 방식인 직교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채택하였다(송거영, 2015; 전우소, 2017; 최창호, 유연우, 2017b; 김훈, 유연우, 2019).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송거영, 2015).

Kaiser-Meyer-Olkin(KMO)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송지준, 2019).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편, .80~.89 꽤 좋은 편, .70~.79 적당한 편, .60~.69 평범한 편, .50~.59 바람직하지 못한 편, .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최창호, 유연우, 2017b; 송지준, 2019).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며, 변수들이 모두 상관관계가 없다(단위행렬)는 귀무가설과 하나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설정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되어야만 요인분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최창호, 유연우, 2017b; 송지준, 2019). 공통성(Communality)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0.4 이하로 낮은 변수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송지준, 2019).

탐색적 요인분석은 먼저 독립변수로 사용한 참여의도 2개 요인인 자발적 참여의도, 비자발적 참여의도를 먼저 하였고, 다음으로 매개 및 종속변수로 사용한 사회적 자본의 3개 요인, 사업성과의 2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자발적 참여의도와 비자발적 참여의도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4-3]과 같다.

독립변수의 요인분석에서 KMO는 0.896으로 꽤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이 .000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7차레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해 자발적 참여의도 요인에서는 ‘자발1, 자발2, 자발3, 자발4’ 4개 항목, 비자발적 참여의도 요인에서는 ‘비자발5, 비자발7’ 2개 항목이 제거되었다. 추출된 2개 요인 모두 고유값 1.0 이상을 충족하였고, 요인 적재치도 .4 이상의 값을 보였고, 누적분산값은 73.412%로 나타났다. 자발적 참여의도에 대한 요인적재치는 .743 이상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참여의도에 대한 요인적재치는 .750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4-3]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항목	요인적재치			신뢰도 Cronbach's α
	요인1	요인2	공통성	
비자발2	.861	.308	.835	.907
비자발3	.835	.233	.752	
비자발1	.811	.188	.694	
비자발4	.779	.353	.731	
비자발6	.750	.306	.656	
자발8	.344	.830	.808	
자발7	.320	.826	.785	
자발5	.106	.811	.668	
자발9	.365	.794	.763	
자발6	.311	.743	.648	
Eigenvalue	3.728	3.614		
분산설명(%)	37.276	36.136		
누적분산값(%)	37.276	73.412		

Kaiser-Meyer-Olkin=.896, Bartlett $\chi^2=1789.811$, df=45, P=.000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4-4]에서 보여준다. KMO는 0.856으로 꽤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검정은 유의확률이 .000으로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추출된 5개 요인은 모두 고유값 1.0 이상을 충족하였다.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누적분산값은 61.736%로 나타났다. 총 6회에 걸친 요인 분석을 통해 ‘공동체8, 규범1, 신뢰1, 신뢰6, 규범3’ 5개의 항목이 순차적으로 제거되었다. 분석 결과,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요인적재치는 .570 이상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에 대한 요인적재치는 .627 이상, ‘주민참여행동’에 대한 요인적재치는 .586 이상, ‘규범’에 대한 요인적재치는 .547, ‘신뢰’에 대한 요인적재치는 .627로 나타나 모두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에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송거영, 2015; 최창호, 유연우, 2017b; 김훈,

유연우, 2019). 여기에서 ‘규범4’ 항목은 항목제거시 Cronbach's α 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제거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각 변수들의 Cronbach's α 값은 .755~ .907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항목	요인적재치						신뢰도 Cronbach's 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	
공동체6	.814	.097	.141	.110	.124	.719	.882
공동체5	.752	.083	.128	.190	.098	.634	
공동체1	.745	.227	.062	.066	.300	.705	
공동체7	.744	.014	.098	.057	-.087	.575	
공동체4	.649	.191	.052	.335	.337	.686	
공동체2	.614	.232	-.064	.115	.344	.566	
공동체3	.570	.141	.110	.377	.267	.570	
네트워크2	-.004	.811	.092	.080	.066	.677	.848
네트워크3	.217	.745	.003	.112	.266	.686	
네트워크1	.209	.742	.230	.093	.220	.705	
네트워크4	.099	.731	.233	.293	.132	.702	
네트워크5	.284	.627	.259	.160	-.186	.601	
주민참여1	.147	.136	.796	.176	.209	.748	.818
주민참여2	.191	.038	.746	-.017	.304	.687	
주민참여3	.035	.112	.715	.205	.276	.644	
주민참여5	.034	.211	.631	.253	-.035	.509	
주민참여4	.048	.190	.586	.269	.090	.463	
규범6	.229	.161	.216	.765	.078	.715	.819
규범7	.269	.110	.219	.754	.134	.719	
규범2	.134	.075	.227	.643	.310	.584	
규범5	.263	.323	.075	.547	.269	.551	
신뢰3	.168	.013	.152	.290	.703	.629	.755
신뢰2	.189	.180	.187	.134	.642	.533	
신뢰4	.217	.088	.229	.132	.631	.523	
신뢰5	.107	.141	.167	.214	.627	.498	
Eigenvalue	4.040	3.219	3.031	2.980	2.783		
분산설명(%)	15.538	12.380	11.656	11.460	10.703		
누적분산값(%)	15.538	27.917	39.573	51.034	61.736		

Kaiser-Meyer-Olkin=.856, Bartlett $\chi^2=3347.93$, df=325, P=.000

4.2.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변수들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 1 사이로 나타나며, ± 1 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김훈, 유연우, 2019). 즉 변화의 강도는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높고, 변화의 방향은 +는 정의 방향, -는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송지준, 2019). 본 연구에서도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방향성과 밀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김훈, 유연우, 2019). 측정변수가 등간척도이므로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잔차항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VIF) 진단을 하였으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고 본다(김훈, 유연우, 2019).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보고 다중공선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가 0.8이 넘지 않아야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우수명, 2019).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간에 상관관계는 .01 수준 아래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각 상관계수가 .351~.620 이내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4-5]에서 보여준다.

[표4-5] 상관관계분석

	자발	비자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주민참여 행동	공동체 활성화
자발	1						
비자발	.620**	1					
신뢰	.457**	.479**	1				
규범	.468**	.512**	.590**	1			
네트워크	.424**	.440**	.389**	.498**	1		
주민참여 행동	.500**	.537**	.506**	.550**	.445**	1	
공동체 활성화	.526**	.390**	.511**	.550**	.449**	.351**	1

**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4.2.3 동일방법편의 검증

실증연구에서 변수를 측정할 때 연구자는 설문조사 등 하나의 동일한 특정 방법만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였다.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로써, 이것은 측정의 타당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연구모형내 변수간 관계의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연구결과를 왜곡시킨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Podsakoff et al. (2000)은 조직시민행동과 관련한 11개 실증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로 인해 발생한 분산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과 통제한 후 재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변수의 분산이 대폭 변화됨을 확인하고, 동일방법편의가 측정변수들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따라서 동일방법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를 수행한다면 그 결과의 내적 타당성에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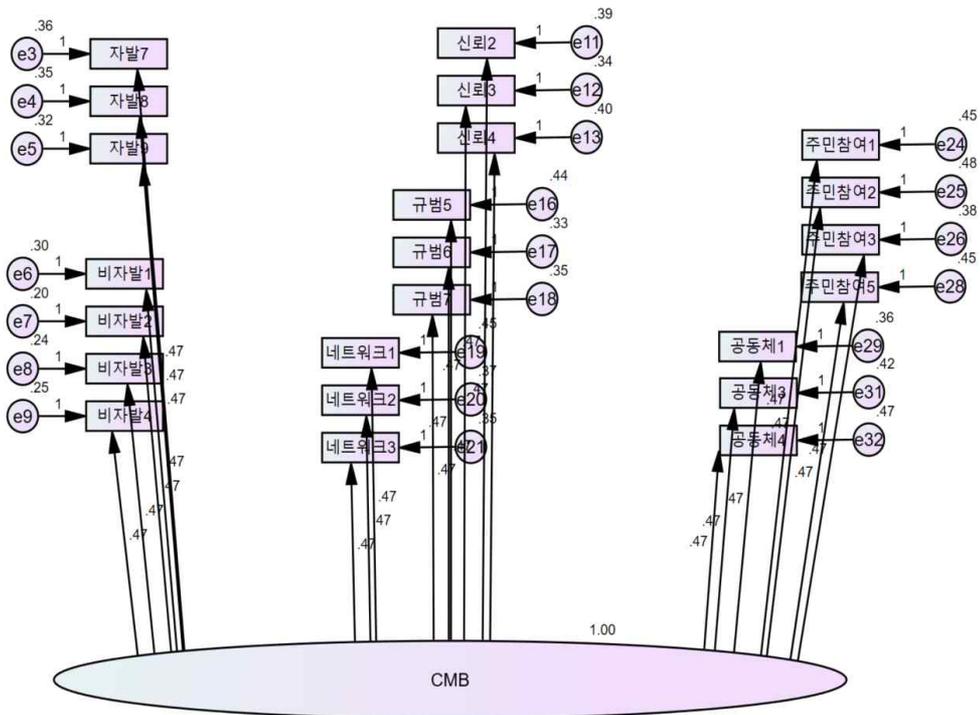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기보고법(self-report)⁵⁾과 관련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이것은 설문항목 자체의 특성이나 측정상황 등에 의해 그 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보고법의 사용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자기보고법의 이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변수간의 측정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5) 자기보고법(self-report)은 사회과학 분야, 특히 인사, 조직 분야처럼 관찰 대상의 지각, 느낌, 태도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간편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Podsakoff et al, 1986), 피검자 자신이 스스로 사고과정, 정서상태, 문제행동 등을 양식에 따라 관찰하고 보고하는 방식임. 연구자가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정보의 많은 부분을 용이하게 수집가능함 (박원우 외, 2007).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Harman의 단일요인 테스트(Harman's single-factor test)로써, 모든 변수를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Harman의 단일요인 테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AMOS 22.0을 통해 분석하였고, 결과는 [그림4-1]과 같다.

확인 결과 단일요인계수가 0.47로 나타났으며, 단일요인에 대한 분산은 이것의 제곱인 22.09%로 나타났다. 어떤 하나의 변인이 공변량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한계 수준인 50%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방법편의에 의한 오류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Podsakoff, Organ, 1986).



[그림4-1] 동일방법편의의 검정

4.3 측정모델의 평가

4.3.1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AMOS 22.0을 활용하여 측정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자료의 타당성을 증명하는데 이용한다(송지준, 2019). 모델적합도는 연구모형을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설의 유의성 검증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우종필, 2017; 한충근, 2018).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 검증과정에 가깝고, 이론 지향적인 성격을 띤다(Van Praijen & Van der Kloot, 2001; 최창호, 유연우, 2017b).

자료의 적합도 검정을 위해서 χ^2 , CMIN/DF, GFI, AGFI, CFI, TLI, RMR, RMSEA 지수를 사용하였고, 적합도 판단기준은 [표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하였다(홍세희, 2000; 신건권, 2016; 우종필, 2017).

[표4-6] 적합도 판단기준

구분	적합도 지수	판정기준	적합기준
절대적합지수	χ^2 (CMIN) (Chi-square statistic)	$p \geq .5$	양호
	CMIN/DF (Q값), (χ^2/df)	< 2 < 3	양호 수용
	RMR(RMSR) (Root Mean-Squared Residual)	$< .05$	양호
	GFI (Goodness of Fit Index)	$> .9$	양호
	AGFI (Adjusted GFI)	$> .9$ $> .85$ $> .8$	우수 양호 적합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 .05$ $< .08$ $< .1$	우수 양호 보통
	증분적합지수	TLI (Tucker-Lewis Index)	$> .9$
CFI (Comparative Fit Index)		$> .9$	양호

출처: 홍세희, 2000; 신건권, 2016; 우종필, 2017; 한충근, 2018

적합도 기준에 미달인 항목에 대해서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이 0.4 미만인 항목을 기준으로 차례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변수를 정제하였다(송거영, 2015; 전우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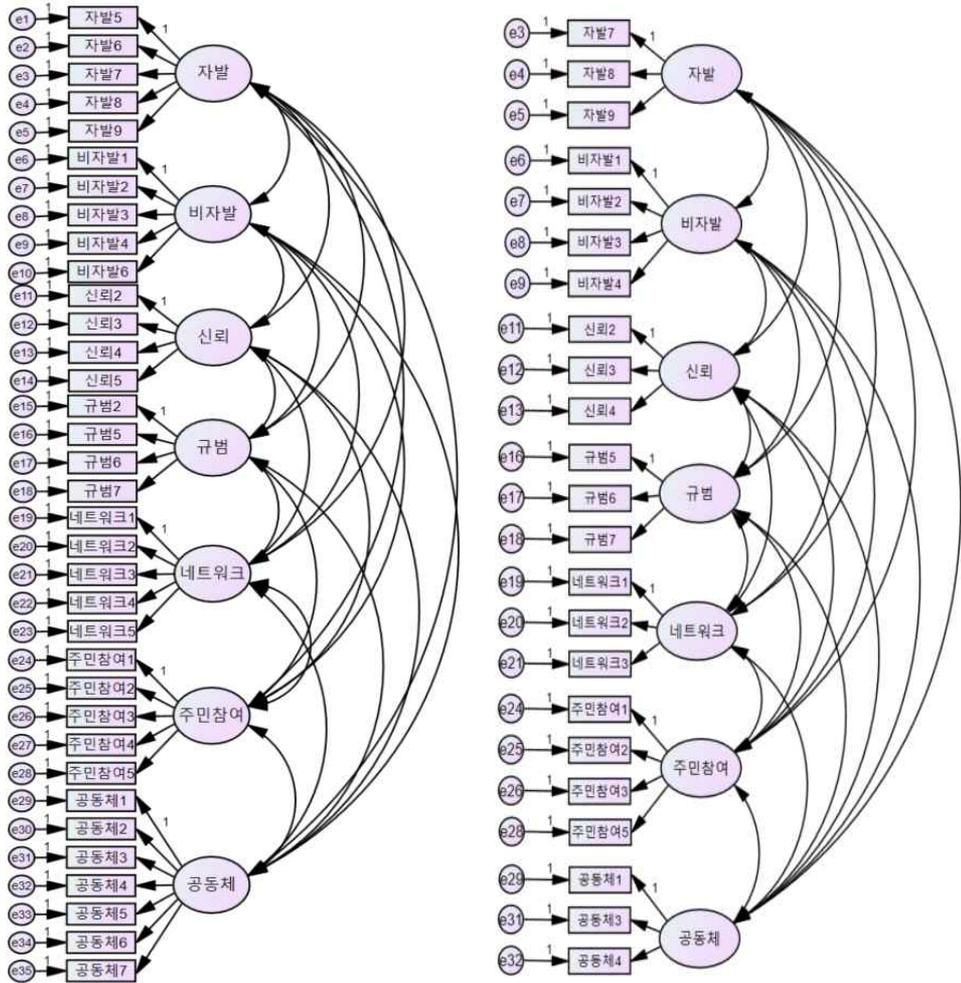
최초 모형을 토대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1631.376$, $df=539$, $P=.000$, $CMIN/DF=3.027$, $GFI=.738$, $AGFI=.693$, $CFI=.800$, $TLI=.779$, $RMR=.041$, $RMSEA=.092$ 으로 나타났다. χ^2 , $CMIN/DF$, GFI , $AGFI$, CFI , TLI 는 위에서 제시한 적합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총 12차에 걸쳐 측정변수를 제거하며 모형을 수정한 결과 최종 수정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최종 수정모형의 결과, 모델적합도는 $\chi^2=543.658$, $df=209$, $p=.000$, $CMIN/DF=2.601$, $GFI=.853$, $AGFI=.806$, $CFI=.900$, $TLI=.879$, $RMR=.030$, $RMSEA=.082$ 로 나타났다. 수정전(최초)과 수정후(최종) 측정모형 적합도 평가 결과 비교는 [그림4-2]과 [표4-7]에서 보여준다.

카이제곱(χ^2) 검정은 그 값이 크면 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본 연구의 $\chi^2=543.658(df=209, p=.000)$ 으로 가설은 기각되었다(한충근, 2018).

그러나 표본이 큰 경우, 모델의 복잡도가 큰 경우, 관측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이나 일반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사용했을 경우 χ^2 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p값은 작아지는 특징들로 인해 구조방정식모델에서 χ^2 통계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χ^2 통계량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우종필, 2017; 최창호, 유연우, 2017b; 한충근, 2018).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한 결과 Normed χ^2 ($CMIN/DF$)=2.601로 기준 3 이하로 수용할 만하다(한충근, 2018).



[그림4-2] 측정모델 분석결과 비교(왼쪽:최초, 오른쪽:최종)

다만 측정모델 적합도에서 $GFI=.853$, $AGFI=.806$, $TLI=.879$ 가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있더라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특별한 기준치는 없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모델의 수용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송지준, 2019). 또한 GFI 와 $AGFI$ 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에 구애받지 않는 CFI 를 권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GFI , $AGFI$ 가 0.9 이하지만 CFI 가 0.9 이상이므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지준, 2019).

또한 홍세희(2000)는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첫째,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적합도 지수는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델을 선호해야 한다고 하였다(홍세희, 2000).

모든 적합도 지수는 데이터에 잘 부합되는 모형을 선호하지만, 많은 지수들이 모형을 평가할 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지수를 사용하면 불필요하게(또는 필요 이상으로)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모형이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므로 적합도의 값이 좋게 나온다(홍세희, 2000; 한충근, 2018).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 오류를 측정할 수 있는 CFI 지수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오류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TLI와 RMSEA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홍세희, 2000; 한충근, 2018).

RMSEA 값은 모형오류와 자유도에 의해 결정되며, 모형오류가 크거나 자유도가 작으면 RMSEA는 커지는 특성이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 RMSEA는 .082로 <.1인 보통인 수준으로 수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절대적 적합도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인 CFI, RMSEA, RMR 지수를 기준(Gefen et al., 2000; 홍세희, 2000; 최창호, 유연우, 2016; 최창호, 유연우, 2017a; 최창호, 유연우, 2017b; 한충근, 2018)으로 판단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모형적합도는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비교는 [표4-7]과 같다.

[표4-7] 측정모델 적합도 평가결과 비교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GFI	AGFI	CFI	TLI	RMR	RMSEA
최초	1631.376	539	.000	3.027	.738	.693	.800	.779	.041	.092
최종	543.658	209	.000	2.601	.853	.806	.900	.879	.030	.082
판단 기준	-	-	>.05	<3.0	>.9	>.9	>.9	>.9	<.05	<.1

4.3.2 집중타당성 분석

집중타당성은 수렴타당성이라고도 하며,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낸다(우종필, 2017). 집중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요인적재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값이 높으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 기준은 0.5 이상으로 0.7 이상일 경우 우수하다고 판단한다(송거영, 2015; 최창호, 유연우, 2016; 우종필, 2017; 송지준, 2019; 김태영, 2019).

둘째,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 값들의 합을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누어 그 값이 0.5 이상일 경우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7; 송지준, 2019; 김태영, 2019).

셋째,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합한 값의 제곱을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누어 그 값이 0.7이상일 경우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7; 전우소, 2017; 송지준, 2019; 김태영, 2019).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관측변수들의 요인부하량(λ)은 .577 ~ .922로 모두 0.5 이상의 수치를 보여 일반적 기준값에 부합한다. 유의성 C.R.값은 ± 1.965 이상($p < .05$), 잠재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631 ~ .859로 0.5 이상의 기준값을 상회하였고,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은 .836 ~ .949로 기준값 0.7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4-8]과 같다.

[표4-8]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AVE	CR
자발	자발7	1.000	.871				.859	.948
	자발8	1.054	.897	.055	19.117	***		
	자발9	1.094	.916	.055	19.810	***		
비자발	비자발1	1.000	.746				.825	.949
	비자발2	1.183	.922	.081	14.595	***		
	비자발3	1.130	.859	.083	13.604	***		
	비자발4	1.055	.804	.083	12.651	***		
신뢰	신뢰2	1.000	.644				.631	.836
	신뢰3	1.131	.751	.132	8.581	***		
	신뢰4	1.073	.675	.133	8.068	***		
규범	규범5	1.000	.655				.723	.886
	규범6	1.213	.845	.117	10.341	***		
	규범7	1.231	.825	.120	10.228	***		
네트워크	네트워크1	1.000	.810				.751	.900
	네트워크2	.711	.724	.065	10.893	***		
	네트워크3	.844	.810	.071	11.894	***		
주민참여행동	주민참여1	1.000	.889				.661	.884
	주민참여2	.785	.730	.064	12.191	***		
	주민참여3	.663	.702	.057	11.617	***		
	주민참여5	.551	.577	.060	9.141	***		
공동체활성화	공동체1	1.242	.788	.112	11.049	***	.721	.885
	공동체3	1.415	.853	.121	11.680	***		
	공동체4	1.000	.718					

4.3.3 판별타당성 분석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들간의 차별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 첫번째 검증방법인 $AVE > \phi^2$ 방법을 적용하는 검증을 하였다. $AVE > \phi^2$ 방법은 잠재변수간 상관계수(ϕ) 값과 평균분산추출(AVE) 제공근 값을 비교한 방법으로 AVE 제공근 값이 상관계수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모든 쌍의 상관계수 값이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공근 값보다 낮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최창호, 유연우, 2016), 분석결과표는 [표4-9]에서 보여준다.

[표4-9]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구분	자발	비자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주민참여	공동체
자발	.927						
비자발	.660***	.908					
신뢰	.601***	.574***	.794				
규범	.550***	.552***	.614***	.851			
네트워크	.446***	.518***	.466***	.453***	.858		
주민참여	.556***	.579***	.581***	.550***	.416***	.841	
공동체	.599***	.492***	.66***	.669***	.552***	.439***	.843

4.4 가설 검증

4.4.1 구조모델의 적합도 평가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모델에 대해 통계프로그램 AMOS 22.0을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567.623$, $df=213$, $p=.000$ CMIN/DF=2.665, GFI=.845, AGFI=.800, CFI=.894, TLI=.874, RMR=.036, RMSEA=.084로 나타났고, GFI, AGFI, CFI, TLI가 적합도 지수에 충족하지 못하였다. 구조모델 적합도가 낮은 경우 구성개념간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AMOS에서는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 M.I.)를 나타내는 변수간에 공분산을 설정해줌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우종필, 2017).

본 연구에서도 M.I.를 이용하여 높은 수정지수를 보여주는 측정오차 e11과 e16간, e18과 e21간에 각각 공분산을 연결하여 적합도를 조정하였다. 결과는 $\chi^2=541.512$, $df=211$, $p=.000$ CMIN/DF=2.566, GFI=.851, AGFI=.806, CFI=.901, TLI=.881, RMR=.036, RMSEA=.081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최종 모델적합도에 대한 결과는 [표4-10]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델적합도에서 GFI, AGFI가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측정모델 적합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송지준(2019)이 설명한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특별한 기준치는 없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모델의 수용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GFI와 AGFI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에 구애받지 않는 CFI를 권고한다는 설명에 따랐다(송지준, 2019).

또한 홍세희(2000)는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첫째,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적합도 지수는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델을 선호해야 한다고 하였다(홍세희, 2000). 모든 적합도 지수는 데이터에 잘 부합되는 모형을 선호하지만, 많은 지수들이 모형을 평가할 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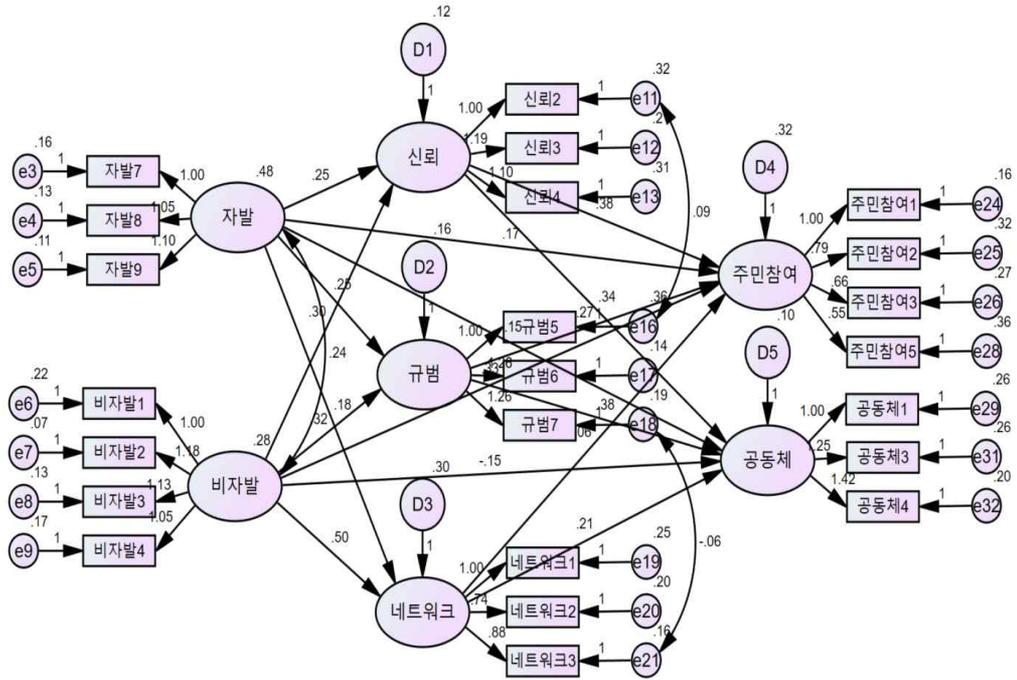
이러한 지수를 사용하면 불필요하게(또는 필요 이상으로)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모형이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므로 적합도의 값이 좋게 나온다(홍세희, 2000; 한충근, 2018).

따라서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할 수 있는 CFI 지수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오류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TLI와 RMSEA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홍세희, 2000; 한충근, 2018). 구조모형 적합도 평가결과 비교는 [표 4-10]과 같다.

[표4-10] 구조모형 적합도 평가결과 비교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GFI	AGFI	CFI	TLI	RMR	RMSEA
최초	567.623	213	.000	2.665	.845	.800	.894	.874	.036	.084
최종	541.512	211	.000	2.566	.851	.806	.901	.881	.036	.081
판단 기준	-	-	>.05	<3.0	>.9	>.9	>.9	>.9	<.05	<.1

결과적으로 볼 때, CMIN/DF은 3 이하, CFI는 .9 이상, RMR는 .05 이하, RMSEA는 1 이하로 기준에 충족하였으며, 다른 지수들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적합도 지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표본특성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기준인 CFI 지수와, 모형 오류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RMSEA, RMR의 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Gefen et al., 2000; 홍세희, 2000; 최창호, 유연우, 2016; 최창호, 유연우, 2017a; 한충근, 2018), 전체적으로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4-3]과 같다.



[그림4-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4.4.2 연구가설 검정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잠재 변수인 자발적 참여의도, 비자발적 참여의도, 신뢰, 규범, 네트워크, 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정결과는 [표4-11]과 같다.

설명력(R^2)은 최종 구조모형 분석 결과 중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를 말하는 것으로(신건권, 2016), 본 연구에서 내생 잠재변수들의 R^2 을 살펴보면, 자발, 비자발이 신뢰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3.9% ($R^2=.439$)이고 자발, 비자발이 규범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7.6%($R^2=.376$), 자발, 비자발이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9.7%($R^2=.297$)이다.

자발, 비자발,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주민참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4.8%($R^2=.448$)이고 자발, 비자발,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공동체활성화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59.6%($R^2=.596$)으로 나타났다.

[표4-11]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가설(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결과
H1-1	자발→신뢰	.250	.381	.064	3.876	***	채택
H1-2	자발→규범	.246	.338	.066	3.726	***	채택
H1-3	자발→네트워크	.181	.191	.087	2.076	.038	채택
H1-4	비자발→신뢰	.295	.346	.084	3.499	***	채택
H1-5	비자발→규범	.318	.335	.088	3.635	***	채택
H1-6	비자발→네트워크	.496	.400	.119	4.156	***	채택
H2-1	신뢰→주민참여	.383	.227	.165	2.319	.020	채택
H2-2	신뢰→공동체	.345	.307	.110	3.128	.002	채택
H2-3	규범→주민참여	.272	.179	.124	2.190	.029	채택
H2-4	규범→공동체	.381	.377	.087	4.376	***	채택
H2-5	네트워크→주민참여	.056	.048	.088	.633	.527	기각
H2-6	네트워크→공동체	.209	.270	.058	3.573	***	채택
H3-1	자발→주민참여	.167	.151	.106	1.572	.116	기각
H3-2	자발→공동체	.152	.206	.068	2.226	.026	채택
H3-3	비자발→주민참여	.326	.227	.144	2.269	.023	채택
H3-4	비자발→공동체	-.154	-.160	.092	-1.667	.096	기각
구조모델 적합도		$\chi^2=541.512$, $df=211$, $p=.000$ CMIN/DF=2.566, GFI=.851, AGFI=.806, CFI=.901, TLI=.881, RMR=.036, RMSEA=.081					

H1-1, 참여의도 변인인 자발적 참여의도는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381, C.R. 3.876, $P < .001$ 로 가설이 채택되어 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아진다는 김영옥 외(20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농어촌은 혈연, 지연 등의 소속감이 강한 집단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인한 공동체가 유지돼 오고 있으므로, 주민 갈등이 없는 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H1-2, 참여의도 변인인 자발적 참여의도는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338, C.R. 3.726, $P < .001$ 로 가설이 채택되어 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은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을 규제하고, 개인의 사고보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Coleman, 1988; Putnam, 1993; 이성조, 2013),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도와 규범간에는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1-3, 참여의도 변인인 자발적 참여의도는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191, C.R. 2.076, $P < .05$ 로 가설이 채택되어 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회는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과 상호 규범을 가지고 협력한다는(Coleman, 1988)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H1-4, 참여의도 변인인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346, C.R. 3.499, $P < .001$ 로 가설이 채택되어 비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아진다는 김영옥 외(2022)의 연구결과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상범

(2018) 연구와 같이 농어촌은 혈연, 지연 등의 소속감이 강한 집단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인한 공동체가 유지돼 오고 있으므로, 주민 갈등이 없는 한 주민들의 비자발적 참여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H1-5, 참여의도 변인인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규범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335, C.R. 3.635, P<.001로 가설이 채택되어 비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은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을 규제하고, 개인의 사고보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Coleman, 1988; Putnam, 1993; 이성조, 2013), 주민의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규범간에는 정(+)²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H1-6, 참여의도 변인인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네트워크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400, C.R. 4.156, P<.001로 가설이 채택되어 비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형성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가지며, 상호 규범 및 협력, 신뢰의 이동 및 확산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Coleman, 1988; Putnam, 1993).

H2-1, 사회적 자본 변인인 신뢰는 주민참여행동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227, C.R. 2.319, P<.05로 가설이 채택되어 신뢰가 높을수록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뢰는 배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Coleman(1990)의 정의를 토대로 신뢰가 높을수록 주민들이 함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H2-2, 사회적 자본 변인인 신뢰는 공동체활성화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307, C.R. 3.128, P<.01로 가설이 채택되어 신뢰가 높을수록 사업에 대한 공동체활성화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역기능적 측면에서 공동체 활성화의 저해와 기존 주민간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상범(2018)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신뢰는 기능적 측면으로 활용될 때,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H2-3, 사회적 자본 변인인 규범은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179, C.R. 2.190, $P < .05$ 로 가설이 채택되어 규범을 잘 지킬수록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은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을 규제하고, 개인의 사고보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Coleman, 1988; Putnam, 1993; 이성조, 2013), 규범과 주민참여행동 간에는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H2-4, 사회적 자본 변인인 규범은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377, C.R. 4.376, $P < .001$ 로 가설이 채택되어 규범을 잘 지킬수록 사업에 대한 공동체활성화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가설 결과를 토대로 규범과 공동체활성화 간에는 긍정적 영향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H2-5, 사회적 자본 변인인 네트워크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048, C.R. .633, $P > .527$ 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상호작용 즉, 개인적 측면이 아닌 양방향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농어촌개발사업에서 네트워크는 공동체적 상호작용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주민참여행동이라는 개인적 측면의 성과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2-6, 사회적 자본 변인인 네트워크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270, C.R. 3.573, $P < .001$ 로 가설이 채택되어 네트워크가 잘 될수록 사업에 대한 공동체활성화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주민들간의 내부적 정보교류와 함께 행정기관,

외부전문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유도하는 매개체로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사는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성기호(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H3-1, 참여의도 변인인 자발적 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151, C.R. 1.572, P값 .116으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발적인 주민참여의도는 구성원 개인들의 참여행동보다는 공동체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가설 H2-5처럼 네트워크와 주민참여행동 간의 영향관계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참여의도가 참여행동으로 이어진다는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에 위배되는 결과지만, 개인적 참여보다 공동체적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의 특성을 살펴볼 때 참여주민들의 성향, 특성, 기타 다양한 환경요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추가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H3-2, 참여의도 변인인 자발적 참여의도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206, C.R. 2.226, P<.05로 가설이 채택되어 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사업에 대한 공동체활성화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가설 결과 H3-1과 관련하여 자발적 참여의도는 개인적 참여행동보다는 공동체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에 따라 공동체활성화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3-3, 참여의도 변인인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227, C.R. 2.269, P<.05로 가설이 채택되어 비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형식적, 수동적, 소극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자발적 참여와는 달리

비자발적 참여는 수동적,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참여라고 볼 때, 실제 개인적 측면의 성과에 주민참여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H3-4, 참여의도 변인인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경로계수 $-.160$, C.R. -1.667 , P값 $.096$ 으로 가설이 채택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위 가설(H3-3)의 결과처럼, 개인적 형태의 참여행동에는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공동체적 측면에서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감, 지속적 상호작용, 연대감, 친밀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로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4.3 간접효과 검정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다중변수를 이용한 매개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PROCESS macro는 SPSS와 SAS 프로그램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Andrew Hayes 교수가 개발하여 최근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모형은 병렬다중매개모형(Model 4), 부트스트래핑은 표본수 10,000개로 설정, 유의 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병렬다중매개모형(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은 매개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서 어떠한 매개변수도 다른 매개변수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형으로(Hayes, 2017; 이형권, 2020), 매개효과분석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매개변수는 한번에 최대 10개까지 사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의도를 독립변수로, 사회적 자본을 매개변수로 지정하고, 종속변수인 사업성과에 대한 간접효과를 산출하였으며, 검정결과는 [표4-12]에서 보여준다.

제시된 효과 크기는 구간추정결과가 95%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Hayes, 2017). 결과분석에서 나타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중 여기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만을 표시하였으며,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아도 간접효과가 유의하면 간접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Hayes, 2017; 김은정, 2022). 계량방법론자들 사이에서도 총효과가 간접효과의 증거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Hayes, 2017; 김은정, 2022).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수 참여의도 변인인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 직접효과($B=.115, t=1.933, p=.055$)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에서 신뢰에 대한 간접효과($B=.103, .045\sim.170$)는 유의하여 가설이 지지(완전매개)되었고, 규범에 대한 간접효과($B=.097, .039\sim.162$)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완전매개)되었다.

반면 네트워크에 대한 간접효과($B=.028, -.013\sim.074$)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는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규범이 매개했을 때 정(+)²의 영향이 나타나며,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독립변수 참여의도 변인인 자발적 참여의도와 종속변수인 공동체 활성화간 직접효과($B=.205, t=3.549, p<.001$)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신뢰에 대한 간접효과($B=.089, .023\sim.160$)도 가설이 지지(부분매개)되었고, 규범에 대한 간접효과($B=.135, .075\sim.197$) 역시 가설이 채택(부분매개)되었으며, 네트워크에 대한 간접효과($B=.054, .014\sim.109$)도 가설이 채택(부분매개)되었다.

세번째 참여의도의 변인인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사업성과 변인인 주민참여행동간 직접효과($B=.275, t=3.774, p<.001$)는 정(+)²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뢰와의 간접효과($B=.126, .056\sim.213$) 역시 유의하여 가설이 채택(부분매개)되었고, 규범과의 간접효과($B=.119, .053\sim.193$)도 가설이 채택(부분매개)되었으나, 네트워크와의 간접효과($B=.030, -.022\sim.091$)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의 직접효과($B=.010, t=-.140, p=.889$)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신뢰와의 간접효과($B=.136, .052\sim.241$), 규범과의 간접효과($B=.204, .123\sim.295$), 네트워크와의 간접효과($B=.093,$

.034~.166) 모두 정(+)의 영향이 나타나 가설이 지지(완전매개)되었다. 따라서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 정(+)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4-12] 간접효과 가설검정 결과

가설	가설(경로)	Effect(B)	SE	t	P	95%신뢰구간		결과
						LLCI	ULCI	
	Direct1 (자발→주민참여)	.115	.059	1.933	.055	-.002	.232	-
H4-1	Indirect1 (자발→신뢰→주민참여)	.103	.032	3.219	.001	.045	.170	채택 (완전매개)
H4-2	Indirect1 (자발→규범→주민참여)	.097	.031	3.129	.002	.039	.162	채택 (완전매개)
H4-3	Indirect1 (자발→네트워크→주민참여)	.028	.022	1.273	.201	-.013	.074	기각
	Direct2 (자발→공동체)	.205	.058	3.549	.000	.091	.319	-
H4-4	Indirect2 (자발→신뢰→공동체)	.089	.035	2.543	.011	.023	.160	채택 (부분매개)
H4-5	Indirect2 (자발→규범→공동체)	.135	.031	4.355	.000	.075	.197	채택 (부분매개)
H4-6	Indirect2 (자발→네트워크→공동체)	.054	.024	2.250	.025	.014	.109	채택 (부분매개)
	Direct3 (비자발→주민참여)	.275	.073	3.774	.000	.132	.419	-
H4-7	Indirect3 (비자발→신뢰→주민참여)	.126	.040	3.150	.002	.056	.213	채택 (부분매개)
H4-8	Indirect3 (비자발→규범→주민참여)	.119	.036	3.306	.001	.053	.193	채택 (부분매개)
H4-9	Indirect3 (비자발→네트워크→주민참여)	.030	.029	1.034	.301	-.022	.091	기각
	Direct4 (비자발→공동체)	.010	.073	.140	.889	-.134	.154	-
H4-10	Indirect4 (비자발→신뢰→공동체)	.136	.048	2.833	.005	.052	.241	채택 (완전매개)
H4-11	Indirect4 (비자발→규범→공동체)	.204	.044	4.636	.000	.123	.295	채택 (완전매개)
H4-12	Indirect4 (비자발→네트워크→공동체)	.093	.034	2.735	.006	.034	.166	채택 (완전매개)

4.4.4 다중집단분석

본 연구는 농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의도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상기 가설 검정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검정결과 ‘기각’된 연구가설은 ‘네트워크와 주민참여행동간의 정(+)의 영향 관계,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의 정(+)의 영향 관계, 비자발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의 정(+)의 영향 관계’로 총 3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결과가 ‘자발적 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참여 의도가 있으면 참여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Fishbein & Ajzen, 1975; 전미리, 2019),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농어촌개발사업의 공동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집단간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세부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세부적 검정을 위한 분석으로 표본집단을 세분화하였으므로 SmartPLS 3.3.7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자의 기본 정보 중 사업대상지 규모(읍면, 권역, 마을), 사업에서의 역할(추진위원회, 일반주민), 사업추진현황(사업추진중, 사업완료), 성별(남, 여), 연령(50대이하, 60대이상), 학력(고졸이하, 대학이상), 직업(농림어업, 비농림어업), 소득수준(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에 대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사항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대상지 규모에 대한 결과는 [표4-13]과 같다. 사업대상지 규모는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읍면단위, 읍면을 제외한 마을 3개리 이상을 묶은 권역단위, 행정리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단위로 구분하였다.

사업대상지를 규모별로 보았을 때, 읍면단위는 자발적 참여의도가 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권역단위, 마을단위는 자발적 참여의도가 주민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면단위와 같이 대상지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체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대상지 규모가 작아질수록 주민참여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을단위로 갈수록 유의확률

(P=.000)이 더 높은 유의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와 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4-13] 사업대상지 규모(읍면단위, 권역단위, 마을단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가설	가설(경로)	전체	읍면단위(110개)		권역단위(64개)		마을단위(64개)	
			C.R.	P	C.R.	P	C.R.	P
H2-5	네트워크→주민참여	기각	1.253	.210	2.711	.007	-3.577	.000
H2-6	네트워크→공동체	채택	2.998	.003	1.555	.120	.911	.363
H3-1	자발→주민참여	기각	1.391	.164	2.368	.018	3.578	.000
H3-2	자발→공동체	채택	3.141	.002	-.783	.434	.736	.462
H3-3	비자발→주민참여	채택	.543	.587	-.360	.719	1.19	.234
H3-4	비자발→공동체	기각	-1.375	.169	-.475	.635	1.136	.256

[표4-13]의 결과는 사업완료지구일 때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업완료 지구는 정부지원사업이 완료되고 자립화가 요구되는 지구이다. 비자발적 참여 의도보다는 자발적 참여의도가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사업 범위가 넓은 읍면 단위보다는 마을 단위로 갈수록 자발적 주민참여행동에서 유의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단위의 경우는 자발적 참여와 주민참여행동 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참여의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마을 단위의 경우 참여의도가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것은 Fishen &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업추진지구에서는 사업대상지 규모와 관련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4-14]는 사업완료지구와 사업대상지 규모와 가설 간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4-14] 완료지구와 사업규모(읍면단위, 권역단위, 마을단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가설	가설(경로)	전체	사업완료지구(131명)					
			읍면(32)		권역(45)		마을(54)	
			C.R.	P	C.R.	P	C.R.	P
H2-5	네트워크→주민참여	기각	3.131	.001	1.806	.036	3.140	.001
H2-6	네트워크→공동체	채택	2.042	.021	1.523	.064	.604	.273
H3-1	자발→주민참여	기각	.703	.241	1.845	.033	3.875	.000
H3-2	자발→공동체	채택	1.683	.046	1.279	.101	2.805	.003
H3-3	비자발→주민참여	채택	.875	.191	.352	.363	.647	.259
H3-4	비자발→공동체	기각	.739	.230	.474	.318	1.541	.062

소득수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는 [표4-15]에서 보여준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자발적 참여의도를 보이는 주민들 중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의 경우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동체 활성화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참여의 주민들은 3천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만 주민참여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소득이 낮으면서 공동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주민들은 개인 성과를 중시하고,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주민들은 공동체 활성화를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수동적 의미에서 비자발적 참여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 때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경우 개인적인 역량강화 등의 성과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4-15] 소득수준(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가설	가설(경로)	전체	3천미만(152명)		3천이상(86명)	
			C.R.	P	C.R.	P
H3-1	자발→주민참여	기각	2.077	.038	1.393	.164
H3-2	자발→공동체	채택	1.205	.228	3.842	.000
H3-3	비자발→주민참여	채택	1.303	.193	1.985	.047
H3-4	비자발→공동체	기각	.100	.920	.392	.695

[표4-16]은 사업완료지구와 소득(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수준간의 분석결과이다. 사업완료지구에서도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자발적 참여의도가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않지만,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공동체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사업완료지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활성화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완료지구의 사후관리 컨설팅 등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4-16] 사업완료지구와 소득(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수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가설	가설(경로)	전체	사업완료지구(131명)			
			소득 3천미만(76명)		소득 3천이상(55명)	
			C.R.	P	C.R.	P
H3-1	자발→주민참여	기각	2.832	.005	1.827	.068
H3-2	자발→공동체	채택	.060	.952	2.469	.014
H3-3	비자발→주민참여	채택	.362	.718	.460	.646
H3-4	비자발→공동체	기각	.402	.688	.087	.931

다음은 직업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이다. 응답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는 102명, 비농림어업 종사자는 136명으로 비농림어업 종사자가 34명 많았다. 분석 결과 농림어업 종사자인 경우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간에 $p < .01$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간에 $p < .01$ 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즉 직업이 농림어업 종사자일수록 개인적인 성과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농림어업 종사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 소득이 비농림어업인 상업, 전문직, 기타 등에 비해 낮을 수 있으며, 위 [표4-16]의 소득 수준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는 아래 [표4-17]과 같다.

[표4-17] 직업(농림어업, 비농림어업)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가설	가설(경로)	전체	농림어업(102개)		비농림어업(136개)	
			C.R.	P	C.R.	P
H3-1	자발→주민참여	기각	2.849	.004	1.023	.306
H3-2	자발→공동체	채택	1.497	.135	3.177	.002
H3-3	비자발→주민참여	채택	4.578	.000	.925	.355
H3-4	비자발→공동체	기각	1.222	.222	.773	.440

[표4-18]에서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학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 대학 이상의 경우에서 자발적 참여의도에 따른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에 정(+)
의 영향이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비자발적 참여보다는 자발적 참여의도를 가진 성향이 두드러지며, 그에 따라 사업성과인 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정금자 외(2013)의 선행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높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표4-18] 학력(고졸이하, 대학이상)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가설	가설(경로)	전체	고졸이하(126명)		대학이상(112명)	
			C.R.	P	C.R.	P
H3-1	자발→주민참여	기각	1.224	.221	3.981	.000
H3-2	자발→공동체	채택	1.542	.123	2.550	.011
H3-3	비자발→주민참여	채택	2.557	.011	.217	.828
H3-4	비자발→공동체	기각	.802	.423	.819	.413

자발적 참여의도는 사업완료지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서 여성들이 더 자발적인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를 통해 사업을 지속화하고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성이 높아졌고, 농어촌개발사업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성취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성의 적극적 참여율이 높은 읍면, 권역, 마을일수록 사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업 완료지구일수록 여성의 참여율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화의 성패가 같

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뒤에 이어지는 사례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표4-19]와 같다.

[표4-19] 사업완료지구와 성별(남성, 여성)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가설	가설(경로)	전체	사업완료지구(131명)			
			남성(67명)		여성(64명)	
			C.R.	P	C.R.	P
H3-1	자발→주민참여	기각	.674	.500	2.968	.003
H3-2	자발→공동체	채택	.308	.758	2.111	.035
H3-3	비자발→주민참여	채택	1.869	.062	1.394	.164
H3-4	비자발→공동체	기각	.037	.970	.805	.421

[표4-20]과 같이 성별(남성, 여성)에 따른 역할(추진위원회, 일반주민)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비자발적 참여의도, 여성의 경우 자발적 참여의도에서 각각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사업완료지구에서 여성의 자발적 참여의도와 사업성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 간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남성이면서 추진위원회 소속인 경우 비자발적 참여의도에 따라 공동체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여성이면서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 자발적 참여의도가 주민참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원회 소속은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숫자가 적고, 사회적 지위나 활동 면에서 남성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농어촌 여성의 추진위원회 참여는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속한다.

따라서 추진위원 중 여성위원으로서 비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소극적,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사업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반면 여성 추진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주민참여행동을 통해 개인 만족과 성취에 유의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여성 추진위원들은 위탁교육 참여율이 높아 그를 통해 자격증(마을문화관광해설사,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농어촌체험지도사, 바리스타 자격 등)을 취득하여 개인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성과를 취득하여

지역내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표4-20] 성별(남성, 여성)과 역할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가설	가설(경로)	전체	남성(122명)				여성(116명)			
			추진위원회(66)		일반주민(56)		추진위원회(26)		일반주민(90)	
			C.R.	P	C.R.	P	C.R.	P	C.R.	P
H3-1	자발→주민참여	기각	.450	.326	.342	.366	1.799	.038	.150	.441
H3-2	자발→공동체	채택	1.411	.079	.983	.163	.400	.345	4.194	.000
H3-3	비자발→주민참여	채택	.192	.424	4.137	.000	.078	.469	.165	.435
H3-4	비자발→공동체	기각	1.651	.049	1.156	.124	.957	.170	.525	.300

[표4-21]처럼 직업과 사업 역할에 따른 집단분석에서 추진위원회일수록 자발적 참여의도에 따른 공동체활성화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일반주민일수록 비자발적 참여의도에 따른 주민참여행동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추진위원회는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일반주민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 것이다. 반면 일반주민의 경우는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덜 느끼며, 참여에 따라 개인적 성과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4-21] 직업(농림어업, 비농림어업)과 사업역할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가설	가설(경로)	전체	농림어업(102명)				비농림어업(136명)			
			추진위원회(62)		일반주민(40)		추진위원회(52)		일반주민(84)	
			C.R.	P	C.R.	P	C.R.	P	C.R.	P
H3-1	자발→주민참여	기각	.519	.302	3.174	.001	.233	.408	.291	.385
H3-2	자발→공동체	채택	3.501	.000	.497	.310	2.372	.009	.647	.259
H3-3	비자발→주민참여	채택	.698	.243	4.949	.000	.833	.203	1.809	.035
H3-4	비자발→공동체	기각	.252	.400	2.320	.010	1.066	.143	.517	.303

자발적 참여의도와 비자발적 참여의도에 따라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양하게 나타났다.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대상지 규모는 자발적 참여의도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체활성화에 정(+)¹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주민참여행동에서 정(+)¹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과는 사업추진 지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업완료지구에는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연 3천만원 미만으로 낮을수록 자발적 참여의도에서 주민참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연 3천만원 이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동체활성화에 더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업완료 지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직업에 따른 분류에서는 농림어업일 경우 주민참여의도(자발, 비자발) 모두에서 주민참여행동 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비농림어업일 경우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활성화 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학력이 높을수록 자발적 참여의도가 사업성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에 모두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에서 자발적 참여의도와 사업성과(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이 여성인 추진위원일수록 자발적 참여의도가 주민참여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나타냈고, 여성인 일반주민의 경우 자발적 참여의도가 공동체활성화에 정(+)¹의 영향을 나타냈다.

여섯째, 추진위원회 소속일수록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간에 정(+)¹의 영향, 일반주민일수록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에 정(+)¹의 영향을 나타냈다. 기타 분석결과로는 소득이 높으면서 60대 이상의 연령일수록, 소득이 높으면서 여성인 경우 자발적 참여의도와 사업성과(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에 정(+)¹의 영향이 나타났다.

주민참여 요구는 주민의 지역사회 관심도와 생활수준에 비례한다는 선행 연구가 있으며(윤성훈, 박천보, 2012),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주민참여와 소득, 학력, 사업추진 및 역할 등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4.5 사례 분석

4.4.4.1. 읍면단위 - 담양군 대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담양군 대전면은 법정리 12개, 행정리 27개, 자연마을 35개로 이루어졌으며, 2017년 현재 총인구 4,573명(남 2,256, 여 2,317)으로 군 전체 인구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담양군 대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2021년 6월까지 80억원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소요하여 H/W사업(행복센터, 조형예술마당, 한재쉼터, 척서정 수로정비)과 S/W사업(교육프로그램,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경영지원, 부대비용)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사업완료된 상황이다. 추진전략으로 교류중심지 기능강화, 조형예술 대중화, 다분야 주민참여 확산을 추구하였으며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장, 추진위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는 중심마을(대치리 1~8리)과 배후마을(11개 자연마을)이며 중심마을의 경우 농가(175호)보다 비농가(500호)의 비율이 높으며 다양한 업종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대전면은 지역역량강화(S/W) 사업으로 교육(리더양성, 한재문화교실, 상가 공동체교육, 문화복지프로그램, 창작공방운영, 선진지견학, 마을가꾸기, 청소년 상상워크숍, 프로그램 인력양성, 행복드림스쿨, 마을소식통,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컨설팅(브랜드 개발, 한재문화거리, 특화콘텐츠 기획, 스토리텔링 개발), 홍보 마케팅(한재작은음악회 및 한마당축제, 홍보물 제작, 운영활성화 마케팅, 준공백서), 정보화(정보화기기 구축 및 음향장비) 등이 운영되었다.

교육을 통해 POP, 바리스타,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베이킹, 건강지도자, 아테아트, 국제 퍼스널 트레이너, 전래놀이 지도사, 놀이전문 지도사 등의 전문자격 인력을 양성하였고, 분야별 인재 활용을 통해 사업 기간내내 분과별 공동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였다. 지역홍보를 위해 천년느티 한마당 축제, 마을소식통(년 4회 발행)를 주민들이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대전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사업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억원을 지원받아 척서정 가는 길 경관

개선, 옛 장터길 오일장 활성화 휴식공간 조성, 돌담길 및 꽃길가꾸기, 마을 자산 활용 콘텐츠 개발, 마을축제 기획,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2022년 초까지 추진 완료하였다.

더 나아가 2022년 5월 현재, 담양군에서 주민참여예산 6천만원을 지원받아 13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중심시설인 행복문화센터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아리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0~27일까지 모집기간을 거쳐 5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동아리 회원들에게는 월 2만원의 회비를 받아 센터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대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선행연구에서 공동체 활성화의 성공 요인으로 제시되는 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지역적 차별화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여관현, 2013; 최지민, 황선영, 김순은, 2016). 대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 비결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리더의 역할 및 리더양성의 중요성이다. 대전면은 사업을 진행하는 4년여 기간동안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속적인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리더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지역강사를 양성하였고, 자체 분과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특히 추진위원회 소속인 사무장은 사업초기부터 완료시 까지 지역의 일꾼으로 제 역할을 다 하였고, 사업추진시기에는 위탁교육을 통해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바리스타, POP, 우리춤 등을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는 등 개인 역량을 높여왔다. 여성 리더로서 제 역할을 자처하며 사업완료 후 시설의 지속적 운영과 프로그램 창출 및 운영, 지역인재 관리, 동아리 운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둘째,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이다. 대전면의 중심시설은 행복문화센터이다.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900㎡으로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정부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설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대부분 방치하는 사례가 많지만, 대전면의 경우 지역내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활성화프로그램의 운영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을 지속화하기 위한 리더들의 고민과 실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운영법인의 체계화이다. 대전면 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시기인 2019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법인으로 ‘대전면행복협동조합’(2019.2.14.)을 만들어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자발적 운영체계를 준비하였다. 정부지원사업 추진시기에 사후관리를 대비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주민들의 꾸준히 참여와 운영을 통해 사업의 지속화를 추구하였다.

넷째, 다양한 연령, 계층을 배제하지 않는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의 연계성 및 지속성이다. 대전면은 사업추진시 초등학생부터 고령의 연령층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이는 여성층을 비롯하여 청소년을 위한 워크숍, 고령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동아리활동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사업의 연계와 지속성을 위해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과 동시에 국토부의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표4-22] 대전면 행복문화센터 동아리 운영 현황 (2022년 5월 현재)

연번	프로그램명	요일	운영시간	정원
1	행복한 우리춤 (초급, 중급)	월	19:00~21:00 (20회)	20명
2	탄탄 요가	화, 목	10:00~11:00 (25회)	15명
3	체조교실	월, 수	14:00~15:00	20명
4	행복한 춤을 추어요~ (춤바)	화	14:00~15:00 (20회)	20명
5	통기타 (초급)	화	18:30~20:30 (20회)	10명
6	통기타 (초급, 중급)	수	18:30~20:30 (20회)	10명
7	서각공예	화	14:00~16:00 (20회)	15명
8	붓을 휘날리며 (서예)	수	10:00~12:00 (20회)	8명
9	귀요미글씨쓰기 (초등)	수	16:30~18:30 (20회)	10명
10	다함께놀자 (전통놀이다늬)	목	16:30~18:30 (20회)	10명
11	행복밴드	목	18:30~20:30 (20회)	10명
12	색소폰동아리키움	목	18:30~20:30 (20회)	8명
13	예쁜글씨피오피	금	14:00~16:00 (20회)	6명
14	배움, 구움, 나눔 (쿠킹)	금	10:00~12:00 (15회)	16명

대전면이 공동체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요인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은 여성리더 참여, 비농업인들의 높은 참여비율, 추진위원회의 제역할, 완료지구에서의 여성 리더 및 여성의 높은 참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4.4.4.2. 권역단위 - 전남 신안군 임자만갯네협동조합 사례

신안군 임자면 소재지에 위치한 임자진리권역은 20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되어 3개 행정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총 사업비 4,250백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사업,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사업 완료 후 운영법인 ‘임자만갯네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다양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농어촌, 해양레저, 드론 등)과 소득사업(민박, 체험음식,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 해양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사업의 지속화를 담보하기 위해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권역내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2018년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체험연계, 같은 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0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중이며, 2019년에는 마을학교에 선정되어 방과 후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배움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임자만갯네협동조합의 성공 비결은 권역사업 추진시 추진위원회가 사업의 핵심 역할을 잘 하였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농어촌개발사업 추진시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상향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유도하며 실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임자만갯네협동조합의 대표이자 권역추진위원장은 권역사업 초기부터 위원장직을 역임하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권역사업 추진 당시 2014년 3박4일간 전문강사진 초빙교육 및 자격시험을 통해 권역주민 24명이 한꺼번에 농촌체험학습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 담당 지역강사를 대거 육성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이끈 장본인들이 추진위원회 소속회원이었다. 권역추진위원회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운영법인(임자만갯네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자립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임자진리권역은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관에 맡기지 않고, 명단 구성시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마을 유지나 관변단체 소속 임원이 주축이 되지 않았으며, 이장을 주축으로 젊고 활동적인 인재들로 구성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동적인 젊은 인재들을 추진위원회에서 추가 영입함으로써 사업완료 이후 자립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시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는 일반주민들의 참여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역의 리더로써 추진위원회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며 추진위원회의 역량이 결국 그 지역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을단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다. 권역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범위가 3~4개의 마을이다 보니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기보다 사회단체 소속이나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읍면단위 사업의 경우는 1개의 읍면 전체를 사업대상 범위로 하다보니 더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권역단위사업은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다가 2019년 신규사업 중단으로 현재는 종료된 사업이다. 전라남도 내부자료에 의하면, 전남지역내 권역단위사업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284억원이 투입되어 16개 시군에 총 81개소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시설물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나 조직 인력 등 미흡, 프로그램 부재, 시설의 개인 사유화 등의 문제로 자립운영이 안되는 권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개발사업의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임자진리권역의 운영법인 임자만났네협동조합 사례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따라 사업완료 이후 마을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며,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추진위원회로 활동할 경우 자발적 참여의도가 공동체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내 리더 육성도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4.4.3. 마을단위 - 전남 나주시 화탑마을 사례

화탑마을은 한우직판장과 음식체험장을 마을공동소득사업으로 추진하며, 10년 이상 꾸준히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복지 개선, 주민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앞장서고 있다. 화탑마을은 2007년 나주시 마을가꾸기사업을 통해 수여받은 4억원의 자금을 밑천으로 하고 주민출자금을 합쳐 2008년 한우 직판장과 음식체험장을 설립하였다. 출자금은 마을 전체 73가구 중 71가구가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3천여만 원을 모았다.

당시 마을 자원으로 나주배, 600두 한우, 정육업 종사 경험자, 식당 운영 경험자 등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통해 한우직판장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거기에 철저한 사업기획과 공동출자 등을 통해 참여형 소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우직판장에서는 암소 한우만을 판매전략으로 내세웠고 첫 해 매출금액이 26억 원, 방문객은 8만여 명에 이르렀다.

마을발전기금으로 매월 5백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후 동종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체험마을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화탑마을은 2020년 기준 매출금액 14억여 원, 방문객 4만7천여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년도 대비 매출액과 방문객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마을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에 이어 2018년부터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장애인, 재소자, 이주민 등)들을 고용하여 농업 참여를 통한 자립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마을내 10여명의 주민들을 한우 직판장과 음식체험장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원의 80% 이상이 마을주민이다.

마을 주민들은 월 1회 이상 꾸준히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민교육을 시행하며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고, 2008년 세웠던 마을 10년 계획이 완성되자 2018년에는 마을 30년 미래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농번기철에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식체험장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한다. 매년 마을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오롯이 주민들을 위한, 주민이 주인공인

마을축제를 열어 끈끈한 단합과 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있다.

화답마을의 운영체제는 화답영농조합법인이 맡고 있으며 법인대표는 2년 단임제로 주민 모두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경영에 대한 투명화와 체계화를 통해 공동사업의 경영에 대해 전문인력이 없거나, 경영자가 공식이어도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다.

화답마을의 성공 비결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이다. 주민의 98%가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사업에 출자를 하고,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공동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마을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꾸준히 참석하여 개인 역량을 높이고 이웃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마을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경영에 대한 체계화와 투명화이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운영 시스템의 매입-매출 등 회계 관리, 소득 분배 등과 같은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 투명화와 체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이영규, 2015). 셋째, 리더들의 시대적 부응에 앞서가는 순발력과 노력들이다.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고, 일자리 지원을 통한 마을주민 고용창출, 주민복지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식물복지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여 농업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넷째, 여성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법인 대표는 마을주민이지만, 실질적인 경영의 핵심은 법인 이사로 재직중인 여성이다. 10여년 전 처음 마을사무장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마을의 모든 사업에 대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마을주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체험 및 소득사업장내 고용인원 중 90% 이상이 여성인력으로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결속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화답마을의 사업성공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리더들의 노력, 마을 여성들의 활약,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4.4.4.4. 마을단위 - 전남 무안군 신월마을 사례

무안군 운남면에 위치한 신월마을은 총 73가구 146명(남 76명, 여 71명)이 모여 사는 농업 중심의 어촌마을이다. 1990년 이후 귀농귀촌으로 15세대, 40여명이 마을로 들어와 살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로 초고령 지역이다. 이 마을의 특이한 점은 활동적인 여성 이장과 부녀회원 주축으로 마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을단위사업이 활성화된 사례이다.

2016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원으로 2년간 신월 커뮤니티센터, 벚꽃길 조성, 야외활력공간,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마을에는 봄철 벚꽃축제와 정월대보름축제가 매년 열렸는데, 마을 인적자원으로 사물놀이 전수자, 무용 전수자, 건강체조 운영자, 짚풀공예 운영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마을내에는 사물놀이, 난타, 부채춤, 건강체조 등 4개의 동아리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 강사는 전부 마을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 이장은 사물놀이를 제외한 난타, 부채춤, 건강체조 등 3개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마을에는 신월마을주민협의회, 신월마을회, 신월노인회, 신월부녀회, 신월청년회 등의 자체 모임이 있으며, 위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자발적 마을사업과 마을주민 공동체 활동이 사업추진 이전부터 왕성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사업추진 당시, 마을추진위원회 구성원 14명 중 여성위원 10명, 남성위원 4명이었으며, 마을의 특색에 맞게 사업계획도 문화·여가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홍보, 프로그램 진행 공간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신축으로 구성하였다.

신월마을 부녀회원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벚꽃축제, 정월대보름 축제, 기타 프로그램에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을 벗어나 인근 연꽃 축제, 영해촌 해맞이축제 등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마을 주민들과 어울림 활동을 진행하였다.

마을의 여성이장은 활동력이 왕성한 편이었으나 마을회의를 할 때는 주민

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였다. 모든 안건은 마을 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행동하였다. 마을회의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주도적이었으며, 남성들의 참여율은 여성보다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 행사나 축제 등에서는 부녀회와 함께 술선수범하는 단합력을 보여주었다.

신월마을은 마을내 인적 자원, 특히 여성의 인적 자원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다. 부녀회는 마을내 동아리 프로그램의 수혜자이며 동시에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여성들의 관심사가 재능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고, 마을공동체로 실현하기 위해 그 역량을 더 넓혀가고자 하였다.

최희영 외(2014)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 성대골마을과 삼각산재미난마을 공동체 사례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성공여부와 성공에서 여성의 기여 여부 등을 논의하기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마을만들기사업의 특성에 부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최희영, 이희정, 2014).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사업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 여성의 참여도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검증이 확인되었다. 여성들의 사업 참여가 높을수록 공동체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업추진지구보다는 사업완료 지구에서 즉 지원 시설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마을 홍보 등을 위해서 여성의 참여와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월마을의 성공요인은 단연 여성리더와 여성 주민들의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남성의 자발적 순응에 따른 자발적 주민참여가 높다는 부분에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는 필수요소이자 사업 성공의 열쇠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지내 주민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농어촌개발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상향식 개발방식에 따른 주민공모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발주 아래 컨설팅회사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형태이다 보니 주민들은 지역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능동적, 적극적 참여보다는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대표 기관인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농어촌개발사업이 공공성을 토대로 농어촌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다보니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3~5년이라는 기간동안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업성과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실질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 농어촌개발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완료 이후 주민에 대한 사업의 자립화 및 지속화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농어촌개발사업의 본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개발사업, 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참여를 ‘의도와 행동’으로 분리하여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실제 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라는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주민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에 대한

자발적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사업완료 이후 사업의 지속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도’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주민들이 상호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여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Coleman, 1988; Putnam, 1993; 이성조, 2013; 김영옥, 2022).

둘째, 사업에 대한 주민의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자본은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든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든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Coleman, 1988; Putnam, 1993; 이성조, 2013; 김영옥, 2022).

셋째,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신뢰, 규범은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네트워크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공동체활성화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특히 신뢰와 규범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과를 내는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참여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의 경우 Coleman(1990)의 개념 정의와 이상범(2018)의 선행연구에서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고, 규범의 경우 Coleman(1988), Putnam(1993), 이성조(2013)의 선행연구, 네트워크의 경우 성기호(2015)의 경우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넷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사이에는 정(+)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간에는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자발적 참여의도는 구성원 개인적인 측면에서 참여행동보다는 공동체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참여의도가 참여행동으로 이어진다는 합리적 행위이론에 위배되는 결과이므로, 공동체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개인의 참여보다 공동체의 참여를 중시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¹의 영향을 주었으나, 공동체활성화에는 정(+)¹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타인의 참여유도에 따라 비로소 참여하려는 의도이므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보다는 개인적 역량강화 등의 성과측면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참여의도와 사업성과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간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에 대한 간접효과는 가설이 지지(완전매개)되었다. 반면,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간의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본 모두 가설이 채택(부분매개)되었다.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간에 간접효과는 신뢰, 규범만 가설이 지지(부분매개)되었고, 네트워크는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간에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모두 가설이 지지(완전매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사업참여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대상지 규모, 사업추진현황, 소득수준, 직업, 성별, 추진 역할, 학력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읍면 단위는 자발적 참여의도가 공동체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권역 단위와 마을 단위는 자발적 참여의도가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면단위와 같이 대상지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체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상지 규모가 작아질수록 주민참여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을 단위로 갈수록 더 높은 유의수준을 보여주었다. 즉 마을 단위

처럼 규모가 작아질수록 주민들의 끈끈한 결속력이나 단합이 잘 이뤄질 것이며, 그에 따른 집단 행동이 더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 완료지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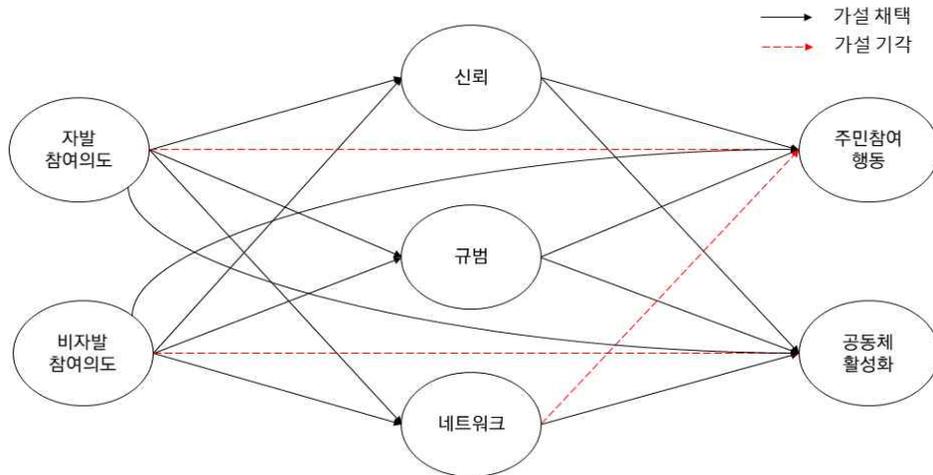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의 차이 분석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동체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도가 주민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자발적 참여의도가 공동체활성화에 더 많은 영향을 나타내었다.

직업에 따른 분류에서는 농림어업 종사자일수록 주민참여행동에, 비농림어업 종사자일수록 공동체활성화에 각각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발적 참여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여성일수록 자발적 참여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인 추진위원은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 소속일수록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상지 규모가 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농업인 종사자일수록, 추진위원회 소속일수록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반면 대상지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업인 종사자일수록, 일반주민일수록, 추진위원회 소속 여성일수록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일수록 개인 측면의 성과인 주민참여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체활성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은 지구는 향후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등의 공동체 활성화에 높은 비중을 두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비자발적 참여의도가 높은 지구는 다양한 교육(리더, 위탁 등) 개인 역량 강화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5-1] 연구 가설 결과 요약

본 연구의 주요 쟁점을 토대로 연구 가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자발적 참여의도와 네트워크는 주민참여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공동체활성화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공동체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자발적 참여의도는 개인적 측면의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주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과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설명될 수 있으며, 반면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타인에 의한 수동적 참여라는 점에서 주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성과에 더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발적 참여의도는 집단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마을, 권역, 읍면 전체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측면의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이기보다 개인성과 측면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자발적 참여의도가 참여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규범이 반드시 매개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참여의도가 공동체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이 완전매개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5.2 연구의 시사점

5.2.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에도 주민참여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주민참여의도와 행동을 명확히 구분한다기보다 주민참여의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주민참여의도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유추해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의도와 참여행동을 명확화함으로써 실제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사업참여의도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 또는 주민참여의도, 주민만족도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고진숙, 서영수, 2016; 전미리, 2019; 황영섭, 2021), 사회적 자본은 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농어촌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 요소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단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암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은 주민참여의도에 영향을 줄 수도 또는 받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사업성과인 공동체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 규범은 사업성과인 주민참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네트워크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는 ‘연계’나 ‘연결’, ‘상호작용’의 의미에서 볼 때, 개인차원의 주민참여행동보다는 집단형태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더 의미있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과 상호규범을 가지고 협력한다는 Coleman(1988)의 연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의 결속력을 높여준다는 Putnam(2000)의 연구를 재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발적 참여의도와 비자발적 참여의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주민참여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의도와 다양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5.2.2. 정책적 시사점

1990년대까지의 농촌정책은 하드웨어(H/W) 등 시설 위주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농업 부문 정책의 보조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고, 사업 주체를 육성하는 역량강화 등의 사업은 미흡하였으며, 변화하는 농촌사회와 공간구조에 정확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00년대 이후 농촌정책은 포괄보조금 도입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통해 정책 간의 통합성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회나 인구 고령화, 공동화 등의 위기 대응에는 역부족이었고, 자치분권 기조에 대응할 수 없는 정책 구조에 따라 부처별 정책의 플랫폼 경합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2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변화를 거듭했다. 정부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재정분권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20년 농촌협약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였다. 이를 통해 시군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시군 역량강화사업이나 소재지를 중심으로 읍면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은 농식품부에서 계속 관할하고, 마을만들기사업 등 마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환에 부응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다. 즉 1개의 읍면에 읍면 단위 사업과 마을단위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읍면단위 사업과 마을단위 사업은 한 지역에서 시행되지 못했다. 즉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시행중인 읍면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중복지원된다는 이유였다.

읍면단위 사업은 중심마을과 배후마을을 나누어 365생활권을 구축하여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심마을인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배후마을 주민들은 사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배후마을 중 중심마을과 연계가 가능한 1~2곳을 선정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단위 사업과의 연계를 필수로 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업 계획은 농촌협약 추진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2~3개 읍면을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설정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과 마을이 상호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 사업을 지속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검증 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읍면소재지 등 사업 대상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업성으로 공공이익이나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마을단위 사업일수록 주민들의 끈끈한 결속력이나 사업에 대한 참여행동 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내발적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완료 이후의 지원 체계화이다. 농어촌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수이다. 사업 추진전에는 농촌현장포럼과 마을리더양성, 사업계획 수립 등에 주민이 참여한다. 사업추진단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참여하고, 사업완료 단계에서는 선택적 지원을 통해 주민이 참여한다.

모든 단계를 통틀어 주민참여율이 가장 낮은 단계가 사업완료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완료지구에서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도에 따른 주민참여 행동과 공동체활성화에 정(+)¹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추진지구보다 사업완료지구에서 사업성과에 따른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성과, 즉 주민의 자발적 사업 추진에 따라 자립적 지속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주민들은 비로소 ‘사업이 뭔지 알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먼저, 사업완료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체계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 완료사업을 기반으로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을 통해 사업완료 후 시설이 방치되거나 개인 사유화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이 종료된 권역단위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발적 참여의도는 공동체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개인적 측면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사업완료지구 분석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가 높은 지구는 공동체적인 측면, 즉 컨설팅이나 홍보마케팅, 마을지원 등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비자발적 참여가 높은 지구는 개인적 성과의 측면, 즉 다양한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한 후속 관리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젊은 층을 유인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 학력이 높을수록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토박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령층보다는 젊은 층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그것은 주민역량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 지역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해결책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젊은 층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 층이 지역이나 마을내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역량교육이나 리더교육 등에 참석을 유도하여 지역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추진위원회 등에 50세 이하 연령층의 의무적 참여비율을 두어 젊은 층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시행이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주민참여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성패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결과로 이어질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의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추진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사후관리 컨설팅이나, 사후 농촌현장포럼 등이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계획단계에서도 농촌현장포럼이나 리더양성교육 등이 있지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며, 사업추진단계에서는 마을 단위가 2~3년 이상, 읍면 단위가 3~5년 이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기간이 가장 길다. 사업완료단계에서도 1년 미만의 기간이 책정되고 있다. 이렇듯 사업추진단계에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 기간안에 사업이 집중되고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단계에서 아무리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성과가 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H/W) 사업과 별개로 사업 추진이 계획된 읍면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단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예정(계획 수립전)인 읍면, 마을에 1단계로 농촌현장포럼, 리더양성, 마을활성화컨설팅을 시행한 후, 주민 자발적 참여도, 사업에 이해도, 계획수립의 현실성 등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결과를 검증하여 추후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지속여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읍면, 마을은 2단계로 넘어가 지속적인 주민 교육, 컨설팅이 실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 단계에서는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참여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선정되어 시작하는 시기까지 주민역량강화에 대해서 공백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속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즉 사업 시작 전부터 완료 이후까지 지역역량강화사업에는 공백이 없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실천하여 성과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증된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이 남성보다 자발적 참여의도에 따른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들의 참여도에 따라 사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여성 위원이 남성 위원보다 자발적 참여의도와 참여행동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할 것을 권장하고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여성은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결속력을 강하게 자극하며 행동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화탑마을, 신월마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아직까지 정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인 교육, 홍보마케팅, 마을지원 등은 추진횟수, 참석자명단, 추진내용, 사진대지, 예산집행 등의 결과보고가 이뤄지고, 컨설팅의 경우는 실행여부가 중요하지만, 결과보고서 제출 이외에 평가체계도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결과보고로는 단순 빈도분석 이외의 지표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참여나 공동체활성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 등을 적용하여 정부의 정론화된 평가지표의 선정과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일선에서는 그러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지원 사업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연구 중에서 주민참여 의도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과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민의 참여가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시사점과 구체적인 제언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부분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개발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그 중에서도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성과에 대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을 완료한 전남 지역에 한정했으며 설문대상은 전남지역 22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 14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지역별로 다른 사업 유형과 사업 기간의 차이,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간과하였으므로 일반화에 다소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변수를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 2가지 변수만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성과는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다시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평가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는데 의의가 있으리라 판단하여 역량강화 관점의 평가지표만을 사업성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정성평가와 더불어 정량평가를 추가 병행하지 못한 부분에서 미흡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에서는 첫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지역별 실증 분석을 추진하여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가미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업의 성과의 변인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에 대해 인과적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때 컨설팅 기관과 추진위원회, 일반주민간의 관계나 컨설팅 기관의 역량 검증 방안 등 주민참여와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주민의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처럼 비자발적 참여도 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는 아니더라도, 개인적 측면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민참여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른 자발적 참여와 비자발적 참여간의 차이검증이나 세부 영향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주도 상향식 개발방식이 본격 추진되었고, 상향식 개발방식에 따른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향식 주민참여 방식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상 지역사회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역량 수준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는 요원하고, 이런 경우 하향식 개발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행정 및 전문가들에 대한 의존 경향은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 상향식과 하향식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평가지표 개발, 단계별 실행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기호. (2018).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관광사업 성과 간 매개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제주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대기. (2004).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경기도: 아카넷.
- 고성일, 임화순. (20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세부항목별 중요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2(3). 2849-2864.
- 고진숙, 서영수. (201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의도 관계 분석: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관광레저 연구』, 28(9), 7-25.
- 고진숙, 서영수. (2017).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농촌관광개발사업의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9(3), 5-20.
- 고진영. (2019).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물리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자본형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혜정. (2005).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
- 김기성, 정미경. (2020).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대관령면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6(2), 71-82.
- 김기성, 정미경, 나권희. (2018).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방안으로서의 논리모델 적용 가능성 탐색: 영월군 지역역량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농공학회논문집』, 60(3), 83-94.
- 김도덕. (201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 분석: 곡성군 목화골권역과 광양시 도선국사권역을 사례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룡. (2008).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완주 디지털 산내골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5(3), 499-531.
- 김민지. (2019).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연구: APIM 환류 모델 제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춘.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 김석영, 박상훈. (2013). 어촌체험마을의 관광영향지각과 주민행동과의 영향 관계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9(2), 125-141.
- 김선희. (2008).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1)』, 국토연구원.
- 김세용. (2002).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9), 195-202.
- 김수린, 주경희, 정순돌. (2018). 소득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65, 103-136.
- 김수영, 오찬옥, 문경주, 류지선. (2014). 마을공동체 형성의 인과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337-381.
- 김승근. (2009).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연구-충주 목계 문화 역사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1(4), 35-42.
- 김영옥, 주동범. (2022). 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자치행정학보』, 36(1), 33-52.
- 김영주. (2021).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사업과 공동체 의식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주, 은희창, 최영완, 박현용. (2014).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은정. (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

- 복지연구』, 46(2), 153-176.
- 김은정. (2022). 농어촌개발 컨설팅에서 주민참여의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20(4), 261-268.
- 김재원. (201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실태와 성과에 관한 연구: 전남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1), 11-22.
- 김정태. (2013).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 경영성과 결정요인. 『농촌계획』, 19(1), 221-231.
- 김정태. (2014).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21(2), 1-28.
- 김주현, 김한수. (2021).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3), 157-164.
-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 김태영. (2019). “컨설턴트 직무스트레스의 긍정적 요인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환배. (202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간 구조적 관계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성. (2020).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훈, 유연우. (2019). 정부지원 컨설팅사업 수행시 컨설턴트간 협업특성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2), 327-335.
- 노병찬, 주덕. (2016).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참여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자발적 공동체 합쳐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241-259.

- 노정민. (2013).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농림축산식품부. (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설명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설명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설명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설명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연구원. (2020). 『농촌공간 시범계획수립 및 지침(안) 마련 연구』. 위탁연구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방향에 관한 지자체 설명회』.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방향에 관한 지자체 설명회.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류인평, 박용배. (2006). 지역축제 주민의 참여 행동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제 지평선축제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6, 87-115.
- 박기관. (2017). 지방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평가와 합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7(4), 101-123.
- 박미애. (2008).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조직사업 사례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경, 김형용, 강혜규, 박소현. (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수진, 나주몽. (2015).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4), 31-51.
- 박수진, 나주몽, 송인성. (201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역량과 주민

- 협력에 관한 연구: 전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연구』, 45(1), 67-95.
- 박용순. (2009).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순, 제상호. (2015). 농촌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과 주민지각과의 관계: 집단적 측면에서 삶의 질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1(3), 85-99.
- 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허규만. (2007).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15(1), 89-133.
- 박은영, 이형숙. (2019). 농촌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및 참여만족도 연구: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25(1), 1-10.
- 박준규, 김민수, 김영하.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3(4), 75-90.
- 박희봉. (2009). 『사회적 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서울: 조명문화사.
- 배광빈, 류인권. (2020). 사회적 자본과 소통이 사회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2), 174-193.
- 백경문, 장동헌. (2019). 농촌마을 컨설팅의 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라북도 무주군을 사례로. 『농촌계획』, 25(2), 23-33.
- 서용선, 김아영, 김용련, 서우철, 안선영, 이경석, 임경수, 최갑규, 최탁, 홍섭근, 홍인기. (201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탄생, 뿌리 그리고 나침반』. 서울: 살림터.
- 서유영. (2013). “지역주민의 문화가치가 지역사회애착과 지역이벤트 태도 및 주민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기호. (2015). “공동체마을의 사회자본과 환경요인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순열. (2007). 주민참여형 지역발전과 주민 역량강화. 『지역과 농업』, 2, 125-146.
- 손창훈, 안용진. (2018).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봉화지역 5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증분석. 『국정관리연구』, 13(4), 1-19.
- 송거영. (2015). “컨설팅몰입이 컨설팅품질지각 및 컨설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3.
- 송미령, 김정섭, 김광선, 심재현, 최지선, 이정연.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성주인.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전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성주인. (2005).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의 관계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4), 293-319.
- 송지준. (201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 신건권. (2016).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AMOS 23 통계분석 따라하기(제2판)』. 서울: 청람.
- 신건권. (2018).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SmartPLS 3.0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신지웅. (2020). “마을발전단계별 마을사업 추진성과분석: 논산시를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동섭, 이병준, 정안성. (2020).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과 주민간 갈등관리 및 농촌마을 사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3), 356-369.

- 안상유. (2013).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주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중호. (201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민 만족도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덕순, 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53-87.
- 오정학, 윤유식. (2009).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 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 관광개발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관광연구』, 24(5), 275-295.
- 우수명. (2019). 『마우스로 잡는 26.0 SPSS』 경기: 양서원
- 우종필. (2017).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원동재. (2013). “지역사회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성은. (2022).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포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훈, 박천보. (2012). 도시재개발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 233-234.
- 윤유식, 박덕병. (2008). 농촌관광마을 지역주민의 사회자본이 농촌관광개발 효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광학연구』, 32(2), 193-211.
- 이길호. (2014). “해양관광유형과 관광자원 가치가 주민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당진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상범. (2018).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상북도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재. (2021). “농촌개발사업 참여주민의 역량수준과 사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 한상욱, 오명택, 고혜진. (2014). 『농촌중심지 육성 및 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 이성조. (2013). “사회적 자본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 (2016). “중국 농촌 관광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관광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규. (2015). “체험형 마을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관광체험형 마을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수. (2022).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현황. 『보건복지포럼』, 2022(4), 6-20.
- 이영아. (2009). 지역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요소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61-272.
- 이일권. (2018). “사회적 자본 인식과 농촌개발협력사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일현. (2016).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 이지현. (2022). “SNS 이용량이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진. (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사회』, 19(1), 7-47.
- 이해진. (2012). 농촌지역개발사업 성과의 차이와 농촌사회 발전에 대한 함의. 『농촌사회』, 22(2), 7-48.
- 이현주, 서지은. (2021).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의 전략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2), 59-68.
- 이형권. (2020). 『PROCESS macro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경기:

신영사.

- 이훈영. (2019). 『이훈영교수의 마케팅조사론(제4판)』. 서울: 도서출판청람
- 임승빈. (2017). 신정부 분권과제와 추진방향: 자치분권. 『지방행정연구, 31(3)』, 3-20.
- 전대희. (2018). 장소애착이 축제 성과 및 주민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원 문화제 야행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2(5), 423-444.
- 전미리. (2019).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자본(통합성, 연계성) 인식 수준이 주민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평, 홍성만, 김선희. (2007). 시민참여 유형분류를 통한 참여성과 분석. 『행정논총』, 45(1), 193-220.
- 전우소. (2017). “컨설턴트선정기준이 컨설턴트역량지각, 컨설팅 완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금자, 박미라. (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0, 43-64.
- 정봉섭. (2010).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 통합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환용. (2001). 『계획이론』. 서울: 박영사.
- 정희동. (2016). “지역애착도가 지역축제영향과 주민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록환. (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용란. (2011). 사회자본이 지역문화축제의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15(3), 385-414.
- 채종훈. (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파급효과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완. (2015).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표준업무 설계 및 적정요율 산정”.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완, 박현용, 김영주. (2013).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의 적정요율 산정. 『농촌계획』, 19(3), 131-144.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회』, 38(6), 97-132.
- 최지민, 황선영, 김순은.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주의적 분석: B아파트 2단지 옥상 텃밭 가꾸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2), 29-54.
- 최창호, 유연우. (2016). 동일 데이터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회귀분석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 『디지털융복합연구』, 14(6), 167-175.
- 최창호, 유연우. (2017a). 상황변수의 조절효과 차이에 관한 연구(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89-98.
- 최창호, 유연우. (2017b).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103-111.
- 최희영, 이희정. (2014).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6), 159-175.
- 하병규, 권영주.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5-225.
- 하세헌, 윤이화. (2012). 지방정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연구』, 15(1), 157-182.
- 하현상. (2018).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이론적 모델개발과 경험적 연구: 신내생적 발전 전략과 스마트 전문화의 접목을 통하여.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 하현상, 이기태. (2017). 마을공동체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중앙정부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2), 421-459.
- 하혜영, 이재성. (2008).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주민참여 활용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2(1), 107-134.
- 한충근. (2018). “지각된 위험특성과 사용자 특성이 비대면 금융거래시스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 정보 기반의 본인인증시스템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완, 조현구. (2018).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효과 분석: 사업집행 변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1(3), 147-180.
- 허주열, 이성근.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45-70.
- 홍성규, 김경량, 최윤상.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농촌계획』, 12(2), 65-73.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 홍영호. (20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동열, 류희진. (2015).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지역사회 애착도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을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18(3), 109-127.
- 황성호, 이희선 (2019).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주의식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3(2), 1-36.
- 황영섭. (2021).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지역개발사업 참여의지의 형성: 농촌지역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의효과 모델화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predicting social behavior*. Social Behavior. Pla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 Albano, R. & Barbera, F. (2010). Social capital, welfare state,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5), 677–690.
- Almond, G. A. & Verba, S. (2015).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rmitage, A. (1988). *Social welfare in Canada: Ideals, realities, and future paths*. (2nd ed).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Bjørnskov, C. (2006).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1), 22–40.
- Bossert, T. J. (1990). Can they get along without us? Sustainability of donorsupported health projects in Central America and Africa. *Social Science & Medicine*, 30(9), 1015–1023.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NY: Greenwood Press.
- Bourdieu, P. (2011). *The forms of capital (1986)*. Cultural theory: An anthology, 81–93. Wiley–Blackwell.
- Brinkerhoff, D. W., & Goldsmith, A. A. (1992). Promoting the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institutions: A framework for strategy. *World Development*, 20(3), 369–383.

- Butzlaff, F. (2022). Consenting participation? how demand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expert-led decision-making are reconciled in local democracy. *Political Studies Review*, 1–17.
- Cassill, N. L., & Drake, M. F. (1987). Apparel selection criteria related to female consumers' lifestyl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1), 20–28.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ist*, 94, 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k, K. (2005). Network, norms and trust: The social psychology of social capita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8(1), 4–14.
- Creighton, J. (2005). *The public participation handbook: Making better decisions through citizen involvement*. John Wiley & Sons.
- Davids, I., Theron, F. & Maphunye, K.J. (eds). (2005). *Participatory development in South Africa: A development management perspective*. Pretoria: Van Schaik.
- De Beer, F. S. (1998). *Community development and beyond: Issues, structure and procedures*. Pretoria: Van Schaik.
- Evans, S. D., & Fernandez-Burgos, M. (2022). From empowerment to community power in participatory budget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00027642221086947.
- Ferragina, E. (2017). The welfare state and social capital in Europe: Reassessing a complex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8(1), 55–90.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https://people.umass.edu/aizen/f&a1975.html>
- Gamble, D. N., & Weil, M. O. (1995). Citizen participation.

-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 483–494.
- Grootaert, C. (Ed.). (2003).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No. 18)*. World Bank Publications.
- Grootaert, C., Narayan, D., Jones, V. N., & Woolcok, M.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18. The World Bank: Washington D. C.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lliwell, J. F.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34–C45.
- Hillery, G.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Rural Sociology*, 20, 111–123.
- Huntington, S. P. (1981). *American politics: The promise of disharmony*.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uwis, C. (2000). Reconceptualizing participation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Towards a negotiation approach. *Development and Change*, 31(5), 931–959.
- Li, Y., Scriven, A., & Garman, S. (2007). *Public health: Social context and action*. UK: Sage Publications.
- Lyons, W. E., & Lowery, D. (1986). The organization of political space and citizen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in urban communities: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Politics*, 48(2), 321–346.
- McCracken, J. R., & Narayan, D. (1998). *Participation and social assessment: Tools and technique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Milbrath, L. W. (1965). *Political participation*, Chicago: Rand McNally.
- Nabatchi, T. & Leighninger, M. (2015). *Public participation for 21st century democracy*,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education and skills*. Paris, France: OECD.
- Pimoljinda, T., & Siriprasertchok, R. (2017). Failure of public particip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ase study of a NGO's development projects in Chonburi province. *Kasetsart Journal of Social Sciences*, 38(3), 331–336.
- Podsakoff, P. M., & Organ, D. W. (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4), 531–544.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Paine, J. B., & Bachrach, D. G. (2000).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 critical review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26, 513–563.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4.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community*. Touchstone Books.
- Riswan, M. (2022). Signific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on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projects: A conceptu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y, Pharmacy and Allied Sciences (IJBPAS)*, 11(1), 1–17.
- Rothstein, B.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29(2), 207–241.
- Rothstein, B., & Stolle, D.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459.
- Rothstein, B., & Uslaner, E. (2005). All for one: Equality, corruption,

-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 41–72.
- Rydin, Y. (1999). Can we talk ourselves into sustainability? The role of discourse in the environmental policy process. *Environmental Values*, 8(4), 467–484.
- Scoones, I. (2007). Sustainability. *Development in Practice*, 17(4–5): 589–596.
- Setokoe, T. J., & Ramukumba, T. (2020). Challeng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community-based tourism in rural areas. *WIT Transactions o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248, 13–22. WIT Press.
- Simmons, D. G. (1994). Community participation in tourism planning. *Tourism Management*, 15(2), 98–108.
- SRHR. (2021). *Civic participation: Meaningful youth participation*. Sexual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 Van Prooijen, J. W., & Van der Kloot, W. A. (2001). Confirmatory analysis of exploratively obtained factor structur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1(5), 777–792.
- Verba, S. (1967).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73(1), 53–78.
- Wates, N. (2000).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 earthscan.
- Westergaard, K. (1986). *People's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 and rural development: the case of West Bengal, India*. Research Report.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Community participation in local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es and techniques*.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 Woolcock, M. (2000). Why should we care about social capital?. *Canberra Bulletin of Public Administration*, (98), 17–19.
- Zimmerman, J. F. (1986). *Participatory democracy: Populism revisited*. New York. Praeger.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본 설문을 통해 실증적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및 효율성에 관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 및 개인 신상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협조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지식서비스&건설링학과 매니지먼트건설링전공 박사과정

지도교수: 유연우 / 연구자: 김은정

전화번호: 010-6662-1729 / e-mail: eeaksu@naver.com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해당 분야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 귀하의 마을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②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③ 시군역량강화사업
- ④ 마을만들기사업 ⑤ 농촌다움복원(시군장의) ⑥ 권역단위정비사업 등⁶⁾

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함

2.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① 리더(위원장, 이장, 부녀회장 등) ② 추진위원 ③ 사무장 ④ 일반주민

3. 귀하의 마을은 현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 ① 사업이 추진중이다. ② 사업이 완료되었다.

[주민참여의도에 관한 사항]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자발적 참여의도]					
(1)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견을 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견을 수집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자(공무원, 업체 등)과 소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수마을 사례를 찾아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직책(위원장, 임원 등)을 맡을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시간을 많이 투자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협력을 유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주민회의 시간을 만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갈등문제(수익배분, 주민간 의견차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비자발적 참여의도]					
(1)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지를 읽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문조사에 협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교육에 참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항]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신뢰]					
(1) 마을 주민들은 서로 신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을 주민들은 서로간 약속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 주민들은 마을단체(추진위원회, 부녀회 등)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을 주민들은 마을 리더(이장, 지도자 등)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을 주민들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마을 주민들은 사업추진시 전문가나 행정 등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규범]					
(1) 마을 주민들은 마을규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을 주민들은 마을규범을 통해 마을운영을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 주민들은 마을운영을 위한 체계가 잘 마련돼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을 주민들은 마을운영체계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을 주민들은 지자체의 정책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잘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런 사건사고 재난에 처했을 때 이웃 및 마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런 사건사고 재난에 처했을 때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네트워크]					
(1) 마을 주민들은 모임(회의)를 자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을 주민들은 정보를 잘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 주민들은 교류를 위한 모임(회의)에 잘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을 주민들은 주민간 교류활동에 만족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을 주민들은 이웃마을간의 교류 및 유대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주민참여행동에 관한 사항]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설명회 등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업추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업추진을 위해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업추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과 참여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마을만의 특성있는 사업모델이 만들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3) 개인이익보다 마을과 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우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을발전에 힘쓰는 새로운 리더와 일꾼들이 생겨났다.	①	②	③	④	⑤
(6)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발전 조직이나 모임들이 생겨났다.	①	②	③	④	⑤
(7) 도시민의 이주나 방문, 교류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8) 마을이나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응답자 기본 정보입니다. 해당 분야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대 이상
-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 졸업
- ④ 대학교 졸업
- ⑤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농림어업
- ② 회사원
- ③ 자영업
- ④ 서비스업
- ⑤ 전문직
- ⑥ 공무원
- ⑦ 학생
- ⑧ 무직
- ⑨ 기타

5. 귀하의 연평균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00만원 이하
- ② 1,000~3,000만원 이하
- ③ 3,000~5,000만원 이하
- ④ 5,000~7,000만원 이하
- ⑤ 7,000~10,000만원 이하
- ⑥ 1억원 이상

6.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 강진군	2) 고흥군	3) 곡성군	4) 구례군	5) 광양시	6) 나주시	7) 담양군
8) 무안군	9) 보성군	10) 순천시	11) 신안군	12) 여수시	13) 영광군	14) 영암군
15) 완도군	16) 장성군	17) 장흥군	18) 진도군	19) 함평군	20) 해남군	21) 화순군

7. 귀하의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9년
- ③ 10~19년
- ④ 20~29년
- ⑤ 30년 이상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business performance in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s
-Focusing o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Jeonnam-

Kim, Eun-Jeong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subsidy system in 2010, rural development projects began, emphasizing regional autonomy and promoting bottom-up development projects by local residents through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Rural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the regional capacity strengthening project, is a project that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bottom-up projects, project planning and capacity building by residents are emphasized, but even now, 20 years later,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is formal, involuntary, and passive. It causes budget waste

along with various problems such as neglect of business facilities or sluggish operation, insufficient programs, and lack of operating manpowe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for continuation of the project for the self-reliance operation of the residents after the support project by inducing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project promotion and enhancing their cap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intention to participate, social capital, and business performance in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regional capacity strengthening project, and provided implications. To this end,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ere established by dividing resident participation intention into voluntary participation intention and involuntary participation intention, social capital into trust, norms, and network, and business performance into resident participation behavior and community vitaliz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intention' for the project had a positive effect on trust, norms, and networks, which are social capital, respectively. Second, residents' 'involuntary participation intention' for the project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rust, norms, and networks, which are social capital, respectively. Third, trust and norms, which are social capital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resident participation behavior in the case of trust, nor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and resident participation behavior and community vitalization. Trust, norms, and networks al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sults in the relationship with community activation.

Fourth, the hypothesis was dismissed becaus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between the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the residents'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a positive impact was adopted betwee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activation. Fifth,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involvement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resident travel building, but the hypothesis was dismissed because it did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mmun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capital for particip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rust and norms betwee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were not significant about direct effects, but only indirect effects wer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hypothesis was not adopted becaus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network were not significant. Regarding the indirect effect betwee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activation,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re significant, and hypotheses were adopted by partial mediation. The direct effect was significant between the involvement intention of involvement and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rust and the norms were significant for indirect effects, but the network was not significant. The direct effect was not significant between the intention of involvement and the community activation, but the indirect effect was positive effects of trust, norms, and networks.

Lastly,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gnificant results were made in the size of the project,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ject, the gender, the job,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income level.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first, and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s and the residents' travel building on the

impac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Second, in this study,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residents has a positive impact on social capital. Third, social capital, trust, norms, and networks, have been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Fourth, this study clarified the definition of voluntary participation and involuntary participation intentions that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and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particip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wider the scope of the project site, the higher the community vitalization of the project performance. As a result,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re needed in selecting business sites. Second, since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residents and business performance are influenced by the completion district, the impact of the work is influenced by the completion district.

Third,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while engaged in agriculture, the more positive influence on participation inten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Fourth,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step-by-step implementation is needed as a way to increas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s. Fifth, women have a positive effect o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than me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women's projects, as well as to increase the ratio of participation in the promotion committee and village community. Lastly, it should be applied to accurat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follow-up management of projects for strengthening residents' capac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government's well-established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study area is limited to the

Jeollanam-do region, and there may be limitations on generalization by ignoring the fact that regional project types are different and there may be deviations in project performance. In the variable setting of business performance, only qualitative evaluation was applied, so whether additional quantitative evaluation was performed in parallel was insufficient. Therefore, as a future research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classify projects by type of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 verify regional empirical analysis, and present more specific and detailed project results by ad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to project performance.

In addition, verific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behavior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which are variable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is study, verification of the competence of a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consulting organization,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residents' voluntary and involuntary participation in project performance, and detailed influence relationship, follow-up studies such a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bottom-up and top-down development methods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will be needed.

【Key words】 rural development projects, regional capacity strengthening project, resident participation intention, social capital, resident participation behavior, community vitalization